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푸른 눈물

(碧色淚 -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中科

蔡蓮花

2024年 2月



푸른 눈물
(碧色淚 - 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咳 宣

蔡 蓮 花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4年 2月

蔡蓮花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成植



委

員

金中燮



委

員

宋咳宣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24年 2月



눈 없는 겨울

1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면 겨울의 위동평원(豫東平原)은 온통 누렇게 황량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 황량하고 고달픈 땅 위에 한줄기 옅은 초록색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바로 땅속에서 머리를 갓 내민 보리싹들이다. 이런 풍경은 연말에, 아직 농번기가 되려면 한참 시기에 볼 수 있다. 이때가 되면, 광대한 중국 땅에 퍼져 있던 농민들이 계절이 오면 돌아오는 철새처럼 살던 등지로 몰려오기 시작한다. 마음속에서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쇠야 한다는 외침이라도 들은 것처럼 ... 그들의 고향은 별처럼 총총히 퍼져 있다. 귀향길에 나선 차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또는 국도를 타고 마을을 향해 달린다. 그 차들은 흘러갔다 되돌아오는 강물처럼 길가에 나이 든 혹은 젊은 귀향자들을 실어 내려놓는다. 귀향자들은 크고 작은 보따리를 짊어지거나 손에 들고 내린다. 봄에 날아갔던 민들레 흩씨들이 겨울녘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골 고향으로 다시 모이는 것이다.

외부로 향하는 가장 넓은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마을 입구에서는 한가한 사람들이 불도 쪼고 담배도 피우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은 국내외 정세로부터 사람들이 바람피운 일, 싸운 일까지 온갖 풍문을 쏟아냈다. 그래서 여기는 시골 마을의 국회 의사당이자, 노천 교회이고, 소문을 퍼트리는 방송국이기도 하다.

그들의 얘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저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말솜씨에 희열을 느꼈다. 그런데, 보기에는 평범한 수다에는 모두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 발언권을 가진 자, 화제를 이끄는 자 그리고 리액션을 맡은 자, 이 모든 것은 각자의 별이와 명망, 그리고 말 주변에 따라 은연중 계층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진성수이(金生水)가 오자, 떠들썩하던 분위기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움츠렸던 목을 쭉 펴면서 끼웠던 팔짱을 풀고는 환한 웃음을 보였다. 이는 마치 해바라기꽃들이 해를 따

라 움직이는 듯했다. “진 사장님도 산책 나오셨어요?” 누군가 말을 걸었다.

그는 고급 담배를 뜯어 모두에게 한 개비씩 던져주더니 느끼한 웃음을 지으며 두꺼운 입술을 움직였다. “자오(趙) 씨한테서 월급 다 받았지? 다들 명절 잘 쉬어.” 모두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기뻐했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올리며 아부하는 자도 있었다. “벌써 받았죠.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일 년 동안 힘들게 일해 온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항상 제때 주시잖아요.” 그러자 모두가 맞장구를 쳤다. “다들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어? 계속 얘기해 봐.”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저희야 심심해서 쓸데없는 얘기나 지껄이는 거죠. 아니면, 사장님 말씀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제안했다. 진성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배를 피워가며 요즘의 관심사, 농촌 뉴스, 국내 정책 그리고 남녀 간 은밀한 얘기까지 생생하고 화려한 입담으로 거침없이 이어갔다.

그러다 자신의 사업을 얘기하던 중, 누군가 조심스레 농담을 걸어왔다. “사장님, 도시에서 건물을 많이 세우잖아요. 나라에서 언제면 우리한테도 그런 높은 빌딩을 지어주고 도시 사람으로 살게 해줄까요?”

그는 두꺼운 눈두덩이에 들어간 실눈으로 웃음 지으며 한 마디 내뱉었다.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 자네 말도 맞아. 농민들을 다 도시로 오게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야.” “정저우시(鄭州市) 개발구의 모 건설 사업도 내가 맡아서 했어. 건축 면적이 총 19만 제곱미터나 돼. 앞쪽은 저층 아파트고 뒤쪽은 고층 아파트지. 가장 인기 있는 주택은 90제곱미터인 침실 2개에 거실이 하나인 구조였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130제곱미터짜리도 있는데, 침실이 3개고 거실이 두 개야. 단지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시외 고속 터미널 없는 게 없어. 거기다 어린이집이며, 초등학교며, 병원, 마트, 재래시장 등 부대시설까지 있지. 아파트 단지 안에는 또 쇼핑센터며, 수영장이며, 헬스장 등 없는 게 없어. 단지의 용적률은 2.3이고 녹화율이 30%나 돼. 총 1,798가구가 살 수 있지. 자, 이제 평균 3인 가구로 계산해 보자. 5,394명이 살려면 필요한 건축 면적은 0.19제곱킬로미터지. 전국의 14억 인구가 방금 그런 조건이 갖춰진 단지에서 살려면, 필요한 건축 면적은 49,314제곱킬로미터야. 사실, 이 면적은 정저우시 6, 7개나 베이징시 3개의 크기에 불과해.” 말하던 진성수는 유유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여러 개의 라이터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두 모금 피우고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집값이 왜 아직도 이렇게 높은 걸까? 왜 모두 도시로 가서 살 수 없을까?” 이 말에 다들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건 말이야, 다 도시로 가버리면 누가 농사짓고, 누가 가축을 키워? 그리고 누가 내 밑에서 일할 거야?” 말이 끝난 그는 웃어 젖혔다. 방금 그의 정색한 말투에 다들 놀아난 듯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두렵고 소름 끼쳤다. 입이 커서 숨이 목에서 한바탕 돌아 나오듯 숨을 내뿔어 대며 웃어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들 깨달음을 얻은 듯 “역시 진 사장의 생각은 저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네요.”라고 연신 감탄하며 아부하는 웃음을 보였다. 진성수이는 담배를 한 개비씩 더 나눠주고 나서 차를 타고 휙 가버렸다. 검은색 벤츠의 매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가버리자, “잘난 척하기는. 내가 피땀 흘리며 일하니까, 네가 돈 벌 수 있는 거야.”라며 다들 약속한 듯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부러운 듯이 또 말했다. “어휴, 우린 언제쯤에나 저런 차도 타고 다니며 말발 좀 세워볼 수 있으려나.” 이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황려우(皇樓) 마을의 우(吳) 씨네는 이제 팔자가 피겠네. 영리한 딸을 낳아서 말이야. 진성수이 눈에 쏙 들었잖아.” 그러자 누군가가 말을 이었다. “생각이나 했겠어. 그렇게 무능한 우 씨가 좋은 혼처를 만날 줄이야. 이게 바로 복이 터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또 누군가가 말했다. “근데 우 씨네 딸이 이 혼사를 탐탁지 않는다고 하더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 이에 다들 허허 웃으면서 한참을 비웃더니, 이내 의심할 여지도 없는 말투로 말했다. “개가 바보면 또 모를까. 그럴 리 있겠어. 우린 축의금이나 준비해 놓자.”

2

황려우 마을은 약간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역사서에 따르면 명나라 때 황후 한 명과 황비 여러 명이 다 황려우 출신이라고 했다. 더구나 황려우 출신인 황후가 조정을 좌지우지했었고, 그녀가 죽은 뒤 새로 등극한 황제는 그녀가 태어난 곳에다 하늘에 닿을 듯한 평려우(鳳樓: 여성이 거주하는 궁내 누각)를 지어 주었다. 물론 지금은 평려우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

를 ‘황려우’라는 이름으로 전해왔고, 이 마을의 이름도 ‘황려우’라고 불러왔다.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에서는 여아가 많이 태어났었고 신기하게도 대체로 미모가 뛰어났다.

왜 황려우 마을에서 미인들이 많이 나올까? 왜 봉건 제국의 황제마저 이들에게 빠졌을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마을 뒤쪽의 강물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많았다. 사람들은 물이 좋아서 예뻐진 거라고 전해왔다. 사실 억지로 꿰맞춘 듯했다. 위동평원의 다른 마을과 다름없이 황려우 마을도 찢어지게 가난했었다. 더구나 유명한 산도, 물도 없었다. 마을 앞을 지나는 작은 하천이 있긴 하나, 그 또한 물줄기가 가늘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니, 가뭄이 들이닥치면 먹고살기가 힘들어진다. 과거, 마을 주변의 토양은 대부분 알칼리성으로 무엇을 심든 다 죽어버렸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배나무를 심었다. 거칠고 내성이 강한 배나무가 알칼리성 토양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오늘, 깊숙이 뿌리 내린 배나무의 가지와 잎은 하늘을 뒤덮을 듯 무성했고 이곳의 배도 달고 연하다고 널리 알려졌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먹고살 만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연한 껍질에 과즙이 푹 푹 떨어지는 수리를 먹고 자란 여아들이 어찌 이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면서 본말을 뒤바꿔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미인과 수리는 황려우 마을을 홍보하는 두 장의 명함이 돼버렸다.

주변의 많은 지역에서도 황려우 마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왔다. 따지고 보면, 황제의 부인도 황려우 마을 출신이었으니까.

하지만 수많은 미인 속에서 우통평(吳桐鳳)이 가장 빛났다.

우통평이 태어날 때 사주를 봤는데, 오행에 목(木)이 없다고 했다. 이에 서당을 몇 년 다녔던 할아버지께서는 돈보기를 쓰고 관상책을 뒤적거리 보았다. 하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피곤한 나머지, 할아버지는 책을 덮고 마당으로 눈을 돌렸다. 이때 마당의 오랜 오동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한창 꽃들이 만발하는 봄날이라 나뭇가지에 빼곡히 핀 방울 모양의 오동꽃들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사르륵 소리를 내며 바람에 산들거렸다. 이에 영감을 얻은 할아버지께서는 말했다. “내 손녀 이름을 ‘통평’(桐鳳)으로 하자!” 사실 ‘통평’이란 단어는 봉황이 오동나무가 아니면 쉬지 않는다는 전설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

의 여자애를 봉황에 비유해 ‘통평’이라 부르니 너무 과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입에도 착 달라붙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집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 손녀 이름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이 무식한 사람아, 한자를 뜯어서 봐. 나무 목(木)자가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꽃도 피고 활기차게 쑥쑥 잘 큰다는 뜻이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통평’을 정식 이름으로 하고, 집안에서는 그냥 ‘샤오핑’(小鳳)이라고 불렀다. 단 그 사람만이 눈웃음을 치며 그녀를 ‘기집아’ 라고 불렀다. ‘기집아, 기집아.’ 라는 소리에 샤오핑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때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뛰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다. 그제야 발밑의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걸 느꼈다.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아 보지 않고 가는데, 자욱한 안개 속에서 뒷모습만 흐릿하게 보였다. 샤오핑은 그 사람을 계속 부르면서 바짝 쫓아갔다. 그러고는 그의 옷자락을 잡고 왜 불려도 모른척하냐고 따지려는 찰나, 그 사람은 갑자기 뒤돌아섰다. 그제야 그 사람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그것은 머리가 없는 몸뚱어리였다. 샤오핑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알고 보니 낮잠을 자면서 꾸 꿈이었다. 그런데 웬지 마음이 아프고 망연자실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 문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여러 번 재촉해 서야 그녀는 방에서 나왔다.

샤오핑을 보자마자 엄마는 다짜고짜 꾸지람했다. “크면서 점점 버릇이 없네. 손님이 왔는데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방에 박혀서 뭐 하는 거야? 도 닭는 거야?”

진성수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엄마가 트집을 잡은 것이었다. 샤오핑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이에 엄마는 더욱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널 보기만 해도 머리 아파. 가슴이 벌렁거려서 못 살겠어. 그냥 방에 박혀 있어.”

엄마의 말에 샤오핑은 씩 웃으면서 대꾸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시(市)에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했어요?”

“너랑 싸우기 싫어. 꺼져!” 엄마는 짜증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말버릇처럼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버지한테나, 샤오핑한테나, 그냥 더 이상 다투기 싫을 때

엄마는 눈꺼풀을 내리고 손가락을 추켜올리며 “꺼져!”라고 소리 질렀다. 성격이 급한 엄마는 항상 상대방이 반응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울화통이 터져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화병 나서 죽으면 넌 애 봐줄 사람도 없어.”

“멀리도 생각하시네요. 누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샤오핑이 또 대꾸했다.

“결혼 안 하면, 중이 될 거야? 벌써 이십 대 중반인데 맨날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우린 시골 사람이야, 직장 좀 다녔다고 도시 사람이라도 된 거 같아? 잘 들어, 연말에 결혼할 준비나 해! 더 이상 널 키우고 싶지 않아. 키워봐야 다 배은망덕한 자식이니까.”

“엄마,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집에다 돈을 가져다준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월급을 한 번이라도 안 보내준 적 있어요? 남동생은 벌써 스물 둘, 셋이나 됐어요. 근데 맨날 일없이 빈둥거리기만 하고, 엄마한테 용돈만 달라고 하는데도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샤오핑은 참다못해 엄마의 말을 반박했다. “엄마는 항상 딸보다 아들이 먼저였잖아요. 제 앞에서 위대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척하는 거, 안 힘들어요?”

엄마는 잠깐 멍해 있더니, 이내 손에 든 밀대를 내려놓고 짹짹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다. 이에 샤오핑은 귀를 막았다. 엄마가 또 한 바탕 늘어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말 양심도 없네. 딸보다 아들이 먼저라고? 너 어렸을 때 말이야, 얼마나 자주 아팠는지 알아? 누런 얼굴에 몸은 또 얼마나 작았는지. 쥐새끼만 해서 한 손으로도 잡을 수 있었어. 옆에서 다들 살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 그리고 한번은 빈혈로 탈수 증세가 난 적 있었어. 그때 30분마다 물을 꼭 먹어야 했어. 만약 엄마가 한 번이라도 안 먹였으면, 넌 지금 염라대왕 곁에 있었을 거야. 거기서 환생 얘기나 나누면서 말이야. 힘들게 다 키워냈더니 이 늙은 엄마한테 그깟 돈 몇 푼 갖다줬다고 큰소리치는 거야!” 감정을 풍부하게 실어 얘기하다 보니 엄마는 자기감정에 스스로 빠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치 슬픔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처럼 눈시울을 훔쳤다.

이렇게 엄마는 특하면 딸을 키워 온 힘든 세월을 들추었다. 그러면서 부모가 키운 은혜를 구구절절 늘어놓았고 심지어 전통 도덕까지 내세우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설득했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녀

는 코웃음을 치며 엄마의 그런 ‘감동’에 맞섰다. “제가 알기로는, 엄마가 남동생을 낳기 위해 아픈 저를 다른 집에 보내려고 했다면서요. 받아 줄 사람도 찾았고요. 계약금도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알고 달려가서 소개해 준 사람과 한바탕 싸웠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어?” 엄마의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노발대발했다. “정말 열불 나서 못 살겠다! 꺼져, 꺼져, 꺼져버려!”

“저 바보 아니에요. 사실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일들을 늘어놓으면 감지덕지 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몇 번 안아봤어요? 산아제한 시절,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남동생을 임신할 수 없다고 원망했었죠?” 샤오핑은 입꼬리를 올려 웃으려 했지만, 어느새 눈에서는 눈물 두 방울이 똑똑 떨어져 내렸다. 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엄마가 여전히 부모의 은혜와 딸의 배은망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샤오핑은 마치 소리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든 것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엄마의 입술과 튀어나오는 침만 보일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면서 뛰쳐나갔다. 슬퍼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리워서였다.

밤빛 속에서 풀들이 바람에 하늘거렸다. 할아버지의 무덤도 바람 타고 떠 있는 듯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저마다 고민이 있다 보니 죽은 사람의 무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의 무덤은 비바람에 침식되었다. 그 무덤 앞에서 샤오핑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예뻐해 주셨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름밤에는 손녀의 곁에서 모기를 쫓아주고, 겨울철에는 손녀의 작은 발을 자신의 주글주글한 배 위에 올려놓고 따뜻하게 데워 주었다. 그러다가 맛있는 게 생기면 항상 벽 속에 숨겨두었다가 손자들이 잠들면 몰래 가져다주었다. 그녀는 꿇어앉아 절을 세 번 하면서 흐느꼈다. “할아버지, 샤오핑 왔어요. 실망하셨죠? 할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국 시에 있는 사범대학밖에 못 갔어요.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학비가 저렴했기 때문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시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때론 과외도 하고 있어요. 이제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샤오핑의 눈물은 차디찬 바람에 눈꽃처럼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할아버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늘에서 눈을 내려 주세요. 샤오핑은 속으로 빌었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멋있어요. 환한 웃음은 맑은 하늘 같아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안 좋아요. 디완(堤灣) 마을에 사는데... 엄마는 진성수이랑 결혼하라고 해요. 할아버지, 저 어떡해요?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어릴 때, 설이 되면, 저는 눈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눈이 오면 할아버지 외투 속에 숨어 눈밭의 눈도 보고,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탕후루도 먹고, 할아버지랑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저 정말 기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올해 저랑 내기할까요? 설 전에 눈이 오면, 저는 할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이 가는 데로 살게요. 결혼하든, 혼자 살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얀 눈꽃처럼 저만의 하늘에서 날고 싶어요. 하지만 날은 흐린데 왜 눈 내릴 기미가 안 보일까요?

3

“전싱(峻星), 올라와. 아버지랑 이쪽 벽을 같이 쌓자.” 바이순(百順) 씨가 사다리 위에서 그를 불렀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이 청년의 이름은 리전싱(李峻星)이었다. 그는 시멘트 통을 들고 사다리에 올라섰다.

“천천히 해. 그래야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어.” 특하면 게으름 피우는 허잉(曠)이 다가와 말했다. 그는 십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쉬고 있었다. “전싱, 한 대 피워 봐. 피곤이 확 풀려.” 그는 바이순 씨의 옷 주머니에서 피울 만한 담배를 꺼내더니, 한 개비 뽑아 입에 물면서 자기 담배 마냥 전싱에게 건네주었다.

전싱은 웃으며 안 피우겠다고 했다. 지난달,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직접 심은 배추를 장터에 내다 팔려고 낡은 트럭에 배추를 가득 싣고 길을 나섰다. 장에 가는 길이 미끄러워 트럭이 도랑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아버지는 허리를 다치셨다. 평소, 아버지는 미장일하러 다녔고 어머니는 집에 있으면서 밭 두 묘에다 배추와 무를 심었다. 그리고 속이 짝 차면 설 무렵에 아버지가 장터에 가져다 팔아 돈을 벌어들였다. 어느덧, 아들 둘은 모두 장가갈 나이가 되어 부모로서

더 악착같이 벌어야만 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온 집안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었다.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는 한편, 마당에 쌓인 배추와 무를 보니, 속이 타들어간 어머니는 결국 위병이 도져버렸다. 이에 전싱은 집으로 급히 돌아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고 아픈 어머니께 약을 달여주었다. 거기다가 성적이 좋지 않아, 수능을 포기하고 일할까 고민하는 동생까지 위로하며 바쁘게 보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쌓여있는 배추와 무를 처리하여 설 설 준비를 해야 했고, 또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동네 어르신께 인사도 드려야만 했었다.

이웃에 사는 후(戶) 씨네가 마을 입구에서 아들 신혼집을 짓고 있었다. 사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봄에 날이 따뜻하고 일하기 좋을 때 지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연말이 시골 남녀가 맞선을 가장 많이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후 씨네 아들도 맞선을 나갔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여자 쪽에서는 며칠 뒤, 후 씨 아들이 약속한 길가의 3층 신혼집을 보러올 것이고, 보고 나서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었다. 이에 급한 후 씨는 푸짐한 음식과 평소보다 높은 월급을 주면서 공사를 서둘렀다. 후 씨는 전싱이 학교 다닐 때, 학비가 모자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주저 없이 돈을 빌려주곤 했었다. 비록 이자를 받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전싱은 후 씨네 공사를 도와주고 있었다.

일하면서도 수다를 멈추지 않은 허잉이 길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저기 봐. 진 사장님 아니야? 진 사장님, 오늘 왜 콘크리트판을 직접 배달해요? 일하는 사람은요? 왜 경호원도 없이 다녀요?”

모두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진성수이과 허잉은 자주 만나게 된다. 진성수이는 허잉을 보더니 피식 웃으며 길가에 트럭을 세우고 차에서 내려왔다. 그는 담배를 한 개비씩 돌리며 입을 열었다. “허치즈(何奇志) 이 자식이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 오늘 내가 마침 시간이 있으니까 대신 배달 가는 길이야. 황려우 마을 서쪽에 갔다가 오는 길에 우 씨네 집에서 한잔하려고. 다들 시간 되면 와서 한잔해.”

“그런 거였군요. 장인어른 집에 가는데 당연히 직접 가져야죠.”

진성수이는 허잉에게 담배 한 개비를 또 던져주며 말했다. “허튼소리로는 자네만 한 사람이 없구먼. 공사나 똑바로 해. 벽을 빼뚫게 쌓지 말고.” “허허, 빼뚫게 쌓은 게 한두 번이겠어요?” 같이 일하던 샤오타오(小濤)가 둘의 대화에 끼

어 들었다. “진 사장님, 언제면 진 사장님 결혼식에 가서 축하주를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진성수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기다려. 빼먹지 않고 초대할게.” 그러면서 몇 마디 얼버무렸다. “그럼, 수고들 하고. 나중에 또 보자.”

그는 옷을 툭툭 털면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진싱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입술을 달짝이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남기고 가버렸다. 진성수이가 떠나고 나니 사람들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투덜댔다.

“저 자식, 돈 좀 벌었다고 우쭐대는 거 봐. 쫓쫓, 우 씨네 정말 땡잡았어!” 허잉은 부러우면서도 질투 난 씩씩한 말투로 말했다. “우 씨네 막내딸 이름이 뭐였더라? 샤오핑인가? 진짜 이쁘게 생겼다더라. 이 녀석 보라. 진싱에게 한 말인데 네가 왜 흥분해? 허허…” 허잉은 아직 독신인 샤오타오에게 조약돌을 던지며 놀렸다.

샤오타오도 한마디 싸붙였다. “형수님이 생각났거든요.”

허잉은 계속 진싱에게 말을 걸었다. “진싱, 학교 다닐 때 샤오핑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정말이야? 이 녀석 여자한테 인기 많네! 말해 봐, 둘이 어디까지 갔어?”

난처해하는 진싱을 보고 바이순 씨는 다급히 둘의 대화를 끊으며 말했다. “십장이 왔어, 어서들 일하자.”

방금 허잉의 말에 진싱은 일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샤오핑 생각으로 가득 찼다. 샤오핑은 신기하게도 말주변이 없는 진싱의 한두 마디에 웃다가 울다가 했다. 때론 허리가 꼬부라질 듯 웃다가도, 돌아서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었다. 물론 웃을 때가 더 많았다.

그 시절, 머리 위의 햇빛은 항상 찬란했었고 기분도 한없이 맑았었다. 학교 다닐 때 둘은 지각하여 복도에서 벌선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때마다 교실에서 그들을 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싱은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라 했지만, 샤오핑은 매우 담담했었다. 그녀는 늘 이런 생각을 했다. 강변에서 살며시 피어난 오동꽃들 중에 몇 송이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이 아닐까?

강물은 그토록 잔잔하고 천천히 흘렀지만, 세월은 눈 깜짝할 새 10년이 훌쩍 넘었다. 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대학도 같은 도시였다.

주변 동창들은 모두 그들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느낌은 둘만이 알고 있었다. 졸업 후, 전싱의 구직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회에는 그 정도 학벌로 단기간에 성공해 보겠다는 청년들로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 또한 구직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 늙어가는 부모,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약속할 수 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굶주린 늑대들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친구와 동업한 사무용품점도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최근, 부모는 그에게 내년의 공무원 시험에 전념해 보라고 제안했다.

어느덧 전싱은 결혼할 나이가 됐다. 그 당시 과묵하고 야윈 소년이 벌써 흰칠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를 가진 튼튼한 사나이가 됐다. 샤오핑의 아름다움도 갈수록 빛났고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연말은 모든 마을의 결혼과 장례가 집중된 시기이다. 이날, 샤오핑은 뻐뻐 마른 옆집 여자애가 드레스에 묻혀 케케묵은 결혼 곡과 쟁쟁한 나팔 소리 속에서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을의 전통 풍습에 따르면, 시집갈 때 신부는 평평 울어야만 했다. 그 여자애의 눈물은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신랑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신부를 안고 차에 태웠다.

샤오핑은 고개를 들고 한겨울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앙상한 오동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나뭇가지의 오동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떨어진 열매를 손에 들고 한참을 쳐다보았다. 작은 방울처럼 말라 버린 오동 열매는 무언가를 외치는 듯했다. 시집갈 때 나도 눈물이 나올까? 나를 안아 차에 태울 남자는 그 사람일까?

4

창살이 북풍에 웅웅 소리를 내는 늦은 밤이었지만, 방안은 환한 불빛에 따듯한 봄기운이 돌고 있었다. 허치즈와 진성수이가 양고기 샤브샤브에 술 한잔하고 있었다. 얼마나 마셨는지 둘은 모두 눈이 풀려 있었다.

허치즈는 흥이 난 진성수이과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친해지고 싶었다. 진성수

이가 맡은 도시 건설 사업에서 한몫 챙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허치즈는 진성수이에게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학교도 졸업 못 한 모질이 몇 년 동안 삼촌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 성공하여 굵직한 아파트 단지 건설과 관리 사무소 운영을 도맡아 해왔다. 진성수이의 성공 비결에는 말주변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점도 허치즈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도 그랬다.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 그는 진성수이에게 대신 배달해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대 같은 건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성수이가 직접 트럭을 몰고 온 마을을 힘들게 돌며 건축자재를 배달해 주었다. 그리고 허치즈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통 크게 3,600위안을 용돈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진성수이의 성공은 단순히 연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연줄이 있어도 잘 탈 줄 모르면 성공할 수 없다.

술을 한잔 먹은 둘은 동창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시골 마을의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 살면서도 여전히 내 집 마련과 결혼, 출산 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허치즈와 진성수이처럼 일찍 사회에 뛰어들어 영리한 머리로 몇 년 분투해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평범한 학생 중에서 일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가졌지만, 그 외에는 모두 여러 도시로 흩어져 고용직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 둘은 의기양양해졌다. 흥에 겨워 몇 잔 더 마시더니 진성수이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감개무량한 말을 했다. “다들 힘들게 사는구나.”

허치즈는 시치미 떼지 말라는 눈빛으로 진성수이를 바라보더니, 이내 히죽대며 말했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할 때 나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주면 안 될까?”

건설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티 낼 수가 없었던 진성수이는 허치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취한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찰싹 소리 나게 그의 뺨을 쳤다. 그리고 굳은 혀를 굴리며 말했다. “허치즈야, 허치즈. 동창 중에서 네가 제일 뽐뽐하고 간이 컸어. 하여간 돈 냄새는 잘 맡는다니까. 내 말 맞지? 한 잔 더 하자.”

허치즈는 빙그레 웃으며 비칠거리는 진성수이를 잡고 한 손으로 술을 따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꼬락서니로 남을 얘기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겉으로는 여전히 술을 권하며 농담조로 말했다. “형님, 다시 양젓 먹으러 가세요.”

이 말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다. 과거, 시골 중학교 선생님의 실력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선생님께서도 영어가 처음이라 제대로 읽지도 못했으니, 학생들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그때 다들 영어 발음을 한자로 표기해서 읽었다.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맨 뒤에 앉아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 진성수이에게 읽어보라고 했다. 첫 구절은 ‘What’s your name?’이었다. 한참을 킁킁 거려도 말이 나오지 않자 옆에 있던 허치즈가 고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표기한 한자음을 말해주었다. 어떻게 들렸는지 진성수이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나는 양젓을 먹는가?”라는 뜻으로 발음해 버렸다. 그러자 모두가 빵 터졌고 오늘날까지 하나의 웃음거리로 남아있었다.

진성수이는 큰소리로 웃다가 허치즈의 몸에 술까지 쏟았다. “이제는 샤오핑이 있잖아. 양젓 따윈 안 마셔.”

그러자 진성수이의 술잔을 채우던 허치즈가 음탕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갓고 놀다가 질리면, 잊지 말고 나한테 넘겨줘. 샤오핑을 노리는 녀석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진성수이는 손에 쥔 술잔을 식탁에 가볍게 내리치면서 말했다. “너한테 넘기라고? 꿈도 꾸지 마! 샤오핑은 내 여자야. 나중에 만나면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해.”

“아이고 우리 형님, 취한 거 아니지? 며칠 데리고 노는 건 믿겠는데, 정말 결혼한다고? 한 여자를 위해 좋은 세월 다 낭비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 설마 결혼 날짜도 잡은 거야?”

진성수이는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자신만만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우리 엄마 유일한 아들이잖아. 계속 손자 타령하시는데 내년에는 그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그러면서 담배꽂초를 입에 물고 말을 이어갔다. “샤오핑 부모랑은 얘기가 다 났어. 근데 샤오핑이 자꾸 시큰둥해하더라고. 쫓쫓.”

허치즈도 술을 한 모금 넘기고 말했다. “혹시, 아직 전심이랑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이에 진성수이는 기대던 몸을 일으켰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깜빡했네. 그런 거였구나. 이제야 앞뒤가 맞아떨어지네.” 그는 술 한 잔을 들이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 그럴 가능성이 있네.” 진성수이는 며칠 전, 마을 입구 공사장에서 진성과 마주했을 때, 일부러 자신을 피하듯이 등을 돌리고 벽돌만 나르던 그의 모습이 생각났다.

“사람 불러 해결해 줄까? 절대 뒤탈 없게 말이야.” 허치즈는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번쩍 들더니 목을 긁는 손짓을 보여주었다.

이에 진성수이는 콧방귀를 끼더니, 술을 벌컥 들이마셨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샤오핑 엄마가 이미 28만 8천 위안의 결혼 예물을 받았어. 그리고 도시에 아파트랑 차도 다 준비됐어. 이렇게 된 이상 뭐 어쩔 건데.”

“예물만 28만 8천?” 깜짝 놀란 허치즈는 입에 있던 술이 뿜어나올 뻔했다. 그는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며 세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통도 크네. 이 돈을 벌려면 내 가게 아가씨들이 밤낮으로 얼마나 오래 일해야 하나?” 허치즈는 현(縣)에서 친구랑 발 마사지 가게를 하고 있었다.

“친구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잘 들어.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 지금 샤오핑이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예뻐졌거든.” 진성수이의 말에 허치즈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음탕한 동작을 하더니, 이내 서로의 어깨를 걸고 꺾꺾거리며 웃어댔다.

술을 다 마신 둘은 샴브샴브 국물에 면까지 풀었다. 그리고 냄비 바닥이 보일 정도로 먹고 나서 허치즈가 말을 꺼냈다. “오늘 정말 잘 마셨는데, 또 겨울밤이 길잖아. 우리 가게에 아가씨 몇 명이 새로 왔거든. 완전 싱싱해. 네가 가서 점검해 봐. 아직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 어때? 가자.”

“난 곧 유부남이야. 애 아빠가 될 사람이라고. 너 같은 독신이랑 자꾸 다니면 되겠어?”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 결혼 전에 실컷 즐겨야지. 나중에 샤오핑한테 잡혀 살면서 후회하지나 말고.”

이 말에 진성수이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핏대를 세우며 말했다. “내가 잡혀 산다고? 그때 가서 보여줄게. 아내랑 애인을 둘 다 끼고 사는 남자가 누군지.”

그러면서 또 말했다. “가자, 새로 온 아가씨 점검하러. 이번이 마지막이야.” 말이 끝난 그는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친구에게 운전하라고 시키고 둘은 뒤에 앉아 시시덕거렸다. 그 와중에도 허치즈는 잊지 않고 계책을 내놓았다. “후 씨네 새집 짓는데 그 녀석이 도와주고 있어. 나중에 내가 콘크리트판을 올릴 때 틈을 타서…” 대화 속의 ‘그 녀석’이 누군지 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진성수이는 입가의 미소를 거두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더니 또 말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5

전싱이 왔을 때 쉬후(雪湖) 제1 중고등학교는 이미 하얀 눈에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소나무의 푸릇함은 여전했고 큰 백양나무에서도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낡은 강의동과 빼격거리는 운동장 시설물이 이 학교의 쓸쓸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실 쉬후 제1 중고등학교도 빛난 과거가 있었다. 당시 이 학교는 고등부가 있는 유일한 시골 중학교였기에 많은 시골 학생이 이곳에서 꿈을 펼쳐나갔었다. 그리고 학비도 저렴하고 학습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 중, 일부는 교수와 학자 그리고 정부 관료가 되었고 그 외의 학생들은 대부분 교육 종사자, 정부 공무원, 관공서 직원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고등부는 학년마다 반이 한 개로 줄어들었고, 중등부 또한 기존의 네 반에서 세 반 혹은 두 반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그래서 넓지 않은 강의동이 텅 빈 교실로 쓸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졸업 후 전싱은 단 한 번도 학교를 찾아오지 않았다. 너무 민망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했고 돈도 못 벌었다. 게다가 전공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자신을 믿어왔던 허우(候)선생님 때문이었다. 선생님께서는 해마다 학습 모범사례로 학생들에게 전싱의 얘기를 해왔기에 그는 학교의 전설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전설’의 삶이 이 지경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한 웃음거리였다. 추억을 더듬던 전싱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올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께서서는 교직원 기숙사의 가장 구석진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문 앞에 도착한 진성은 문 앞에 버려진 검붉은 난로를 보는 순간, 선생님과 같이 있었던 추억들이 떠올라 왈칵 눈물이 났다. 바로 이 난로 옆에서 그는 선생님과 수많은 겨울밤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그를 유독 아꼈다. 그는 저녁 자울 학습이 끝나면 선생님을 찾아와 난로 옆에 앉아 공부도 하고 얘기도 나누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50대의 독신이었지만, 조악한 생활환경과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성품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선생님은 항상 책을 안고 보다가 마주 앉은 진성한테 한두 마디 건네곤 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둘은 냄비에 물을 끓여 국수를 삶아 먹었다. 국수를 삶는 방법은 간단했다. 냄비에 국수랑 소량의 풋채소를 넣고 끓이다가 달걀 하나를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트리면 완성이었다. 그리고 둘은 면 치기 해가며 맛있게 먹었다.

선생님께서서는 효자였다. 사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대학입시제도가 다시 시행된 후, 사범대학에 붙은 사람들은 모두 인문학 지식이 해박한 인재이기에 최소, 정부의 말단 관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중고등학교 교사였다. 그것은 선생님의 짙룩거리는 다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것도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이다. 글쓰기 솜씨가 뛰어난 선생님께서서는 졸업 당시, 지방정부의 정책연구실에서 오라고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짙룩거리는 다리를 학교 측에 보여주며 말했다. “제 모습이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가겠습니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쉼후 제1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왔다.

선생님의 교육방식은 매우 개방적이었다. 예를 들면 수업계획을 쓰지 않고 수업한다든가, 시험 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시험과 관련 없어 보이는 지식을 서로 연결해 흥미진진하게 강의했다. 해박한 지식을 품은 선생님께서는 그 어떤 주제

를 꺼내도 거침없이 자유자재로 얘기를 펼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루한 강의가 되지 않도록 때때로 유머를 풀어서 국어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마저 흥미롭게 들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선생님의 일상의 삶은 좀 답답했다. 어머니가 죽는 시늉까지 하며 아들의 결혼을 재촉하자,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매파의 소개로 이혼 경력이 있는 농촌 여성과 급히 결혼을 해버렸다. 사실 다리에 장애가 있긴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지역에서 명망 있는 교사이기에 젊은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생님과 결혼한 여자는 성격이 거칠어 집안일은 독단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그러면서 선생님께 이거 해라 저거 해라하며 지시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잘 돌보는 편이었다. 이렇게 5년이 지나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뒤에야 모두가 선생님과 이 여자가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뒤, 선생님은 자신의 월급을 여자에게 주면서 말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마음이 찢어졌다. 5년이란 시간을 같이 보냈어. 목적이라도 마음이 돌아설 텐데 말이야. 돈을 건네받은 여자는 울화통이 터져 선생님께 울부짖었다. “절름발이 주제에, 나를 우습게 여겨? 절뚝거리며 분필 가루나 먹고 다니면서 말이야. 뭘 어찌고 어찌? 내가 뭐라고 널 우습게 봐!” 이 말에 선생님은 어안이 병병했다. 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옆에서 수군대는 모두의 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이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염치없이 그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꺼낸 건데, 이런 원망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여자의 화난 말에 선생님께서는 이 여자를 가벼이 보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이 여자를 다시 잡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종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허(賀) 씨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허 씨로 말하자면, 그는 선생님 맞은편 방에 사는 마(馬) 선생님과 친구이고 얼마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아마 마 선생님과 한잔하려고 찾아오면서 이 여자와 여러 번 마주쳐서 서로 알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이 여자 또한 만일을 대비하여 자신의 살길을 찾아놓은 셈이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웃으면서 이 여자를 정말 가벼이 보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전싱이 선생님을 알게 됐을 때 선생님께서는 이미 독신으로 돌아왔고, 그때는 선생님의 인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였다. 그날 저녁 국수를 다 먹고 나서 전싱은 마침 주말이라 급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기숙사에서 하룻밤 잘 생각이었다. 고구마 수확 철이긴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집에 가면 고구마 수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누르스름하게 바랜 책을 들고 보다가 얼굴의 두꺼운 안경이 보이게끔 책을 살짝 내리더니 입을 열었다. “전싱, 네가 쓴 눈꽃에 관한 글을 읽어봤어.” 선생님께서는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들었다. “‘중학생 독서’ 잡지에 보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 갔다. “잡지에 실리든 않든 중요치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네가 글을 정말 잘 쓴다는 거야. 글에서 나온 비유는 선생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전싱 앞에서 선생님께서는 늘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강의할 때도 웃을 때가 있으셨다. 하지만 그때 웃음은 배우가 무대에서 청중에게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웃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전싱을 향한 미소는 진심이였다. 선생님의 얼굴은 마르고 길쭉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미소는 더욱 짙어 보였고 안경 뒤에 숨어있는 두 눈은 항상 자상하고 따뜻했다.

자신을 이렇게 아끼는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진 전싱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듯이 황급히 말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열린 한숨을 내뿜었다. “이 몇 년 동안,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는 정부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었고, 사장이 된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간 학생도 있었지. 심지어 양아치도 많았어. 하지만 작가는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이곳에서 사업가나, 공무원 그리고 양아치 같은 사람도 많이 나왔어. 하지만 글솜씨가 뛰어난 작가는 없었어.” 선생님의 말씀에 전싱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것은 선생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말을 계속 이어 갔다. “이곳은 여러 개 성(省)이 맞닿은 지역이다.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어 나가도 마치 개미 죽은 듯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죽은 뒤, 그들의 존재는 바람처럼 날아 가버리니까 아무도 몰라. 왜 그럴까?” 이때 안경 너머 전싱을 쳐다보는 선생님의 눈빛은 별빛처럼 반짝였다.

“바로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매우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또 말을 이어갔다. “이제 나도 늙었어. 젊었을 때,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뭐가 좋은 글인지 보면 알아. 나는 장편을 쓰면 항상 맛이 안 나거든. 이젠 너만 믿을게.”

선생님께서서는 진심이 얼마나 침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글쓰기에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또 가장 좋아하는 공부가 뭐였는지, 선생님께서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심은 그냥 울고 싶었다. 이런 느낌은 선생님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에 사는 많은 운명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예민하고 과묵한 성격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냥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을 느꼈다.

훗날, 진심은 허치즈에 의해 건물에서 추락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교사가 되어 많은 글을 썼다. 그런데 그때 그의 선택이 어찌면 뿌리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뜻을 이루지 못한 중학교 선생님을 본보기로 삼고 그의 말에 홀려 아무도 관심 없는 광활한 농촌을 주제로 글을 쓰겠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때는 흐름에 따라 경영학이나 IT를 배워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나 관리직을 하며 큰돈을 버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었다.

스승과 제자가 다시 이렇게 만나니 너무나도 기뻐다. 차디찬 방 안의 침대에 누워있던 선생님은 진심을 보자 움푹 파인 두 눈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돌았다. 그 순간 진심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이 몇 년 동안...” 선생님께서서는 몸을 일으키더니 괜찮다고 손짓하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나를 보러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진심을 반겨주었다. 좀 진정된 후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안은 지저분하고 사람의 온기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비록 우수한 제자들을 키웠지만, 이 혼잡한 세상에서 모두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느라 이곳에서 조용히 시들어 가는 중학교 선생님을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진심은 선생님께 약을 가져다드리고, 난롯불을 피우며, 사과도 깎아드렸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는 심지어 “선생님, 저랑 병원에 같이 가요.”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너무나도 창피한 나머지,

원서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께서는 힘겹게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바보야, 울긴 왜 울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앉아 있어. 옆에 가까이 와 봐. 오랜만에 둘이 얘기나 하자.”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 몇 년 동안, 원서가 여러 신문잡지에 발표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었다. “내가 다 저장해 놓았어. 정말 멋지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흐뭇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다. 원서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마음속으로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선생님, 우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의 말씀도 맞아요. 수 없는 삶과 죽음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들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곳에 태어난 것은 하늘이 내린 벌과도 같은 거예요. 도시의 잘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건, 저 임금의 배달꾼, 말단 회사원, 가사 도우미, 그리고 수많은 값싼 농산물이에요. 이 땅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따뜻함 따윈 아무 의미도 없고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선생님, 이제 저도 곧 서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글 쓰는 재능이 없나 봐요. 이제 안 쓸려고요. 죄송해요.” 원서의 말에 선생님께서는 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누구도 젊었을 때는 평생 할 일을 알 수가 없단다. 쓰고 안 쓰고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 이걸 숙명이야.” 선생님께서는 마치 도망가 봐라. 운명이 널 놓아주느냐고 말하는 듯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글쓰기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화제로 돌렸지만, 선생님의 병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원서가 얘기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선생님께서도 얘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책을 읽으셨고, 병도 오랫동안 앓으셨다. 그래서 세상과 작별을 앞둔 그는 더 이상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은 쉼터 제1 중고등학교 얘기를 나누었다. 선생님께서 들려준 고등부의 한 졸업생의 말에 따르면, 올해 전교 1등은 매우 노력하는 학생이었고 지금 성적으로 비교적 좋은 2년제 대학은 물론이고 좀 더 노력하면 시에 있는 4년제 대학도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가르칠 선생이 없네.”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은 선생님은 다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가버렸어. 그러니 학부모도 애들을 도시 학교로 보

널 수밖에 없지.” 선생님께서는 과거 번창했던 학교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또 깊은 한숨을 내뿜었다. “어쩔 수 없네. 이게 추세잖아.”

그러면서 전싱에게 침대 머리 쪽에 있는 책장을 열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책장 속 구조오(仇兆鰲)의 ‘두보(杜甫) 시집 해석’이라는 책 다섯 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별 선물로 이 책들을 줄게.”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다. “설 명절에 다들 바쁘는데, 어서 돌아가거라. 그리고 더는 여기 오지 마. 부정 타니까. 나중에 네 책이 나오면 저승으로 한 권 태워줘. 우리 착한 전싱, 오늘 마지막 이별 인사하자.”

선생님의 말씀에 전싱은 책을 안고 평평 울었다. 너무 세게 울다 보니 몸이 떨리면서 책 속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살포시 땅에 떨어졌다.

6

“엄마, 진성수이가 나를 쉘후(雪湖) 제2탄광 안전팀에 넣어준댔어요. 내가 제복을 빼입고, 손에 삼단봉을 들고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봐요.” 우이웨이(吳義偉)는 그 모습을 흉내 내며 말했다. “정말 죽이죠! 게다가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나를 설득해 봐요.”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 엄마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말했다. 장작이 축축해서인지 뿜어나오는 연기에 엄마는 연신 기침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 말을 들어야 말이지. 너도 봤잖아. 맨날 이맛살을 찌푸리고 다니는 거. 무슨 말만 하면 돌아가겠다고 난리야.” 엄마는 몹시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어휴, 너희 둘은 언제면 철들겠니.”

엄마의 말에 우이웨이는 얼굴을 붉히며 지껄여 댔다. “가긴 어딜 가? 시에 자기 집이라도 있대? 그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 일해서 돈 몇 푼 번다고 그러는 거야. 돈 있는 진 사장이랑 결혼하면…”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덜떨어진 아들의 등을 때렸다. “이 못난 놈아, 내가 앞가림 좀 했어도 누나를 진성수이한테 시집 안 보내. 알기나 해? 스물이 넘은 자식이 아직도 일없이 빈둥거리고 말이야.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 듣고. 어휴,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 이 꼴 안 보지.”

이에 우이웨이는 머쓱해서 주방을 나가더니 입구에 놓인 세숫대야를 발로 차 버렸다. “아무튼, 아버지 따라 과수원에서 일하기 싫어요. 맨날 허리 숙이고 일하는 거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말이 끝난 우이웨이는 방금 발로 찼던 세숫대야가 다시 제자리로 굴러 들어오자 또 한 번 세계 차버리더니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와 마주쳤는데도 그는 말없이 고개를 획 돌렸다.

그런 아들을 보며 우 씨는 물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 또 어디 가는 거야?” “죽으러 가요!”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저녁 먹기 전, 샤오핑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엄마, 학교에 일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식탁에 막 앉았는데, 딸의 말에 그만 앞에 놓인 젓가락을 땅에 떨어트렸다. 한참을 지나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내가 너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만 믿고 있다가 과수원의 과일이 또 썩어 문드러지겠어. 일년내내 힘들게 가꿨는데 또 망치게 생겼잖아. 근데 진성수이가 와서 전화 몇 통 돌리더니 바로 판로를 찾아줬어. 잘 생각해 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어?”

엄마의 말에 샤오핑은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딸한테 말 한마디 없이 예물을 받아요?” 그녀는 분노하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게 딸 파는 거지, 시집 보내는 거예요?”

엄마는 좋은 말로 딸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딸이 화를 내며 대꾸하자 잠깐 멍해 있더니 이내 당당하게 받아쳤다. “우리 집 형편을 몰라서 그래? 그저 엄마 말에 따박따박 대꾸나 하고 말이야. 네가 진성수가 올 때마다 한 번이라도 반겨준 적 있어? 시큰둥해 있고 말이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주변 몇십 리에 진성수이만한 사람이 있는지. 뭘 더 바라는데!”

엄마의 말에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끝내 터져 나오고 말았다. “말끝마다 그 사람의 돈이네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디완의 그 자식이 무슨 마법을 썼길래 네가 이렇게 빠졌니?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졌구나.” 엄마는 원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노발대발했다. “집도 차도 다

없어. 돈도 없고 말이야. 거기다 아픈 엄마랑 미장일하는 무능한 아버지까지 딸렸어. 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좋은데? 제발 정신 좀 차려. 고집 피우지 말고!”

이에 샤오핑은 별떡 일어서더니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은데요. 너무 좋아서 누가 뭐래도 그 사람과 같이 있을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딸의 고집에 엄마는 속이 타들어 갔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다 큰 애를 집안에 묶어 둘 수도 없고, 정말 그 자식이랑 죽고 못 살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깨달은 엄마는 부드러운 말투로 딸을 타이르기 시작했다. “엄마도 너랑 싸우기 싫어. 우리 딸 억울한 거 엄마도 알아. 하지만 시집은 가야잖아. 솔직히 진성수이만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 너도 봤잖아. 지난달 혼담을 꺼내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섰잖아. 진성수이가 원하는 게 뭐겠어? 네 대답이잖아. 이렇게 예물도 많이 받았는데 대답은 해줘야지. 안 그래?”

“제가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동의한 적도 없고요.” 그녀는 식탁에 놓인 그릇을 안쪽으로 밀며 말했다. 그러고는 눈꺼풀을 내리며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발 한 번이라도 속 편하게 밥 먹으면 안 돼요?”

이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안 받을 수가 없었어. 매파는 계속 찾아오지, 너는 대답도 없지. 나도 매번 둘러대며 거절했어. 근데 우리가 받은 과자 상자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 매파한테 급히 물어봤는데, 웃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 이걸 어떻게 돌려줄 거야?” 엄마는 또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제발 네 사촌 언니처럼 살지 마라. 네 사촌 언니가 동관(東莞)의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다가 부모 몰래 남자를 사귀었는데, 시집간다고 갔더니 남자 집이 빈털터리였다더라. 거기다가 친정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도 없고, 친정엄마는 딸 소식을 알 길이 없대.” 말하던 엄마는 앞치마로 축축해진 눈가를 닦았다. “진성수이가 네 못난 동생한테도 버젓한 일 자리를 찾아줬어. 정말 진심으로 널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눈치 없게 굴지 말자.”

“눈치 없게 굴지 말자고요? 엄마는 그저 진성수이가 돈이 많고, 우리 집 체면

세워줬고, 동생 일자리를 찾아준 것만 생각하죠. 그 사람의 방탕한 생활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거죠?” 샤오핑은 화가 치밀어 올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식탁 위 반찬을 먹으며 말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리고 남자들은 결혼 전에 다 방탕해. 옆집 아저씨 봐봐. 예전에 술 마시고 도박하며 별짓 다 했잖아. 근데 결혼하니까 어때? 얼마나 듬직해졌어. 진성수이도 마찬가지로야. 결혼하고 안정되면 밖으로 나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말이면 무조건 들을 거잖아.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들 한몫 챙겼으니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샤오핑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일어섰다. “결국 진성수이랑 결혼할 사람은 저예요. 평생 살아야 할 사람도 저고요. 그런 불구덩이에 뛰어들 사람도 저라고요.” 그녀는 절망 속에 빠졌다.

이때, 아버지가 추워서 손을 비비며 밖에서 들어왔다. 그는 엄마와 샤오핑의 다툼을 보고 어설픈 한마디 했다. “설날인데 싸우지 말고 밥이나 먹자.” 하지만 샤오핑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획 돌리고 나가버렸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기 때문이다.

집을 나온 샤오핑은 과수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배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 아래 참새가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몸에 감겨들었다. 샤오핑은 가슴을 움켜쥐며 쓸쓸한 마음을 달랬다. 왼손이 연락받고 급히 달려왔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몸을 따뜻해질 때까지 안아주었다.

야밤에 가느다란 초승달이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고 옆에서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샤오핑은 왼손의 찌푸린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진성수이 예물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한바탕 싸웠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왼손은 아무 말 없이 강물에 비친 초승달을 향해 조약돌을 던지기만 했다. 이렇게 한참을 지나 그는 입을 열었다. “어머니를 너무 원망하지 마.”

이에 그녀는 울분을 터트렸다. “너도 알고 있잖아. 내 동생이 백수인 거. 진성수이가 탄광에서 편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나 봐. 그랬더니 나를 들볶는 거야.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어.”

우이웨이는 덩치만 컸지, 덩치값 못 하는 녀석이다. 집안에서만 성질을 부렸지, 밖에서는 나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모두의 놀림을 받았다.

그녀의 말에 전싱은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이곳에서 탄광 일이 제일 안정적이잖아. 네 동생을 너무 원망하지 마.”

이에 샤오핑은 씩씩대며 또 말했다. “삼림 감독관으로 일해오신 우리 할아버지 말이야,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안 했다고 여태까지 공무원 연금을 안 주고 있잖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돌아가신 후 화장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을에 이어온 풍습은 흙 속에 묻는 매장이었다.

전싱은 고개를 들고 밤하늘에 떠 있는 작고 희미한 별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잘됐네. 그쪽에서 얘기만 해주면 해결되겠네.” 그가 이 말을 한 이유는 할아버지 연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진성수이 삼촌이었기 때문이었다.

전싱의 말에 샤오핑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전싱의 뺨을 힘껏 때렸다. 순간 그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때리고 나서 샤오핑의 눈가도 축축해졌다. 그녀는 전싱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러면서 서럽게 외쳤다. “전싱, 전싱!”

둘이 있는 이 밤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갈대숲이 바람에 휘휘 날리는 소리, 날아다니는 들새가 떨어지는 별똥별에 놀라 날개를 펴러가는 소리, 그리고 드문 드문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전싱, 우리 도망갈까?” 샤오핑의 두 눈에서는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전싱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빗으며 말했다. “이 바보, 도망갈 곳이 없잖아.” 그러자 샤오핑 두 눈에 반짝이던 빛이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몸에 기대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꼈다.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전싱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집에서 3킬로나 떨어진 학교를 걸어 다녔다. 그래서 지각하기 일쑤였다. 그 당시 샤오핑은 할아버지가 사준 예쁜 자전거가 있었지만, 등굣길을 그와 같이 가려고 일부러 타고 다니지 않았다. 둘은 항상 걷다가 멀리서 울리는 학교 수업 종소리가 들리면 전싱은 샤오핑의 손을 잡고 뛰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각할 때가 많았다.

가끔 너무 심하게 지각하면 교실 복도에서 벌서기도 했다. 그녀는 아직도 손을 잡고 달리던 그 느낌을 잊지 못했다. 당황하면서도 설레는 마음, 가쁜 숨소리와 벌렁거리는 심장 소리, 이는 마치 작은 모험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같이 안 갈 거면 나 혼자서라도 갈 거야. 아니면 강물에 뛰어들 거야. 어쨌든 그놈이랑은 결혼 안 해!” 샤오핑은 진심을 와락 꺼안으며 불멘소리했다. “알잖아. 그놈이 얼마나 방탕한지를…”

진심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를 꼭 껴안아 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지난해, 지금과 같은 겨울밤이었다. 시에서 돌아오면서 진심은 그녀에게 주려고 하트모양의 옥 목걸이를 샀다. 샤오핑을 보자 그는 안부를 물어보는 대신 입꼬리를 올리며 불렀다. “기집애야.” 그러고는 튼튼한 팔뚝을 벌려 그녀를 꼭 껴안았다. 샤오핑은 그의 품속에서 안정을 찾은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매서운 눈바람 속에서 모든 것들이 멈춘듯했다.

“나 설 쉬고 여길 영영 떠날 거야.” 샤오핑이 옥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다. “너랑 꼭 결혼할 거야.” “대답해 봐. 나랑 결혼할래?” 진심의 어깨에 기대고 있던 샤오핑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녀의 말에 진심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집 형편을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네 부모님도 반대하실 거야.”

“몰라! 그냥 결혼할 거라고. 할 거라고 말해!”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진심을 바라보더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래, 결혼하자. 꼭 결혼하자!” 진심은 흐느끼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다.

좀 진정된 후, 샤오핑은 진심의 손을 꼭 잡아 자기 가슴에 얹으며 말했다. “결혼 못 한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을게. 마음만으로 충분해.” 이 말에 진심은 외쳤다. “이 바보야.”

샤오핑은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나만 울보 아니네. 너도 울고 있잖아.” 그녀는 진심의 눈물을 닦아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를 꼭 안아줘.” 그러고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둘이 시로 돌아가서 월세방 잡고 같이 살까?” 그러면서 또 말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 이에 진심은 말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 너한테 안 좋아.” 그러자 샤오핑은 진심

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나도 안 무서운데, 네가 왜 무서워해?” 그러면서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 부모가 호구부를 안 내주면 혼인 신고 안 하고 살면 되지. 시대가 어떤 시대든 서로 사랑하면 같이 사는 거지 뭐.”

샤오핑은 잘 알고 있다. 결혼은 여성의 잔혹한 전쟁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피를 흘리며 가시밭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펼치고 싶었다.

원성은 그녀의 이런 기대에 계속 말없이 침묵했다. 이런 침묵 속에서 그녀 두 눈의 반짝이는 빛은 점점 사라졌다. 드디어 원성이 입을 열었다. “사실 선생님도, 너도, 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사실, 난 뛰어난 재능이 없어. 요 며칠 계속 고민했지. 나 그냥 쉼 후 제1 중고등학교에서 교편 잡으려고 해. 선생님의 말씀처럼 다 각자의 숙명이 있는 거야. 이 숙명이라는 게 도망갈 수 없는 마음의 빛이라는 거더라. 도시에서 나는 개미 같은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아니야. 선생님이 나를 가르친 것처럼, 나도 애들을 그렇게 가르칠 거야.”

7

“아버지, 나 시내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사람을 쳤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자기 걸려 온 전화에 놀란 우 씨는 전화기를 들고 잠깐 정신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이내 그는 정신을 차리고 떨어진 목소리로 다급히 물었다. “아들아,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다쳤어?”

우이웨이는 통화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진성수이과 허치즈를 쳐다보았다. 진성수는 아무런 표정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허치즈는 터져 나올 듯한 웃음을 꼭 참으면서 계속 연기하라고 그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우이웨이는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경찰서에 잡혀 왔어요. 조사 받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고 배고파 죽겠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다급히 말했다. “아이고, 어쩔 좋아. 아들, 걱정하지 마! 지금 바로 갈게.” 그러자 우이웨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오신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지 말고, 빨

리 누나한테 진성수이에게 연락해 보라고 해요. 빨리요!” “알았어, 알았어. 바로 해보라고 할게.” 아버지는 황급히 대답했다. “아버지는 오지 마시고 누나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이제 전화 끊어야 해요. 누나한테 꼭 얘기해요. 끊어요!” 우이웨이가 전화를 끊자마자 웃음을 꼭 참고 있었던 허치즈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더니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웃어댔다. “이 자식, 연에게 진출해도 되겠어. 연기 죽이는데.” 이때 진성수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췌!” 하며 진성수이가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허치즈를 보며 업무가 바쁜 듯 연기했다. “허 사장님, 미안해요. 전화 좀 받을게요. 이따가 계속 얘기해요.” 그러고는 우 씨와 통화를 이어갔다. “괜찮아요. 안 바빠요. 무슨 일이에요?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힘들게 말을 꺼냈다. “저…. 그게 말이야…. 철없는 자식이 전화가 왔는데, 어휴, 시내에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쳤대. 지금 경찰서에 끌려갔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어휴….” 진성수이는 우 씨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아저씨,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가볼게요. 아저씨도 바쁠 텐데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에 우 씨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휴, 어른이 돼서 정말 면목 없네. 자꾸 자네한테 부탁만 하고 말이야….” 그러자 진성수이가 또 아버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아저씨, 그런 말씀 하시면 섭섭하죠. 제가 바로 가볼게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아, 맞다. 지난번에 샤오핑한테 사준 옷은 입어봤대요?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그래, 잠시만 기다려 봐. 샤오핑에게 전화 받으라고 할게.” 이내 전화기 저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샤오핑, 샤오핑, 빨리 전화 받아. 진성수이가 할 말 있대. 왜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받아. 네 동생이 지금 경찰서에 있단 말이야.”

“동생 일에 저를 내세우지 마세요. 응석받이로 키워서 사고만 치는 거잖아요? 내버려두세요. 이참에 경찰한테 혼 좀 나야 정신 차리죠.” 샤오핑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 동생의 일을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옆에서 끊임없이 애원하던 아버지가 통화 중인 핸드폰을 수류탄 던지듯 딸 옆에 던져버렸다. 샤오핑은 바로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귀한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딸에게 끊지 말라고 손짓하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가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

도 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지만, 끝까지 안 받겠다고 버티면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것만 같았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핸드폰 저쪽의 진성수이는 샤오핑과 통화하려고 다른 방에 들어가 있었다. 잠시 후, 핸드폰 속에서 그녀의 잔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기다리던 진성수이는 귀가에 댄 핸드폰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고소하다는 듯이 씩 웃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이래도 나한테 잘난 척할 거야?

아버지의 거둬진 독촉에 샤오핑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옷을 입어 봤는데, 잘 어울리더라. 부모님도 옷이 이쁘다고 하셨어.” 그녀의 말투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내 동생… 잘 부탁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 통화가 끝나자, 샤오핑은 핸드폰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신이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너무나도 짜증 나서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진성수이는 핸드폰을 달고 욕을 내뿜었다. 하지만 여전히 웃는 표정이었다. 그는 거실로 나가 허치즈에게 말했다. “일단, 우이웨이를 네 가게에서 며칠 놀게 해. 광산 안전팀에 출근하는 거 이틀 안에 확정되니까.”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우이웨이에게 물었다. “이 고물차는 얼마에 샀어?”

우이웨이는 낡아빠진 오토바이를 걸어차며 대답했다. “중고로 샀는데도 2,000위안 넘게 줬어요.”

“무슨 개소리야. 200위안에 팔아도 살 사람 없어.” 진성수이는 말하면서 마당에 놓인 건축용 쇠 파이프를 손에 쥐었다. 그러고는 오토바이를 여러 번 힘껏 내리쳤다. “이 정도로 찌그러져야 교통사고지. 아이고, 손 아파서 못 하겠네.” 그러면서 쇠 파이프를 우이웨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계속 부셔 봐. 네 누나랑 결혼할 때 새것 하나 사줄게. 그래야 폼나지.”

쇠 파이프를 건네받은 우이웨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매형.”

그리고 나서 허치즈와 진성수이는 공사 얘기를 나누었다. 그 사이에 허치즈는 킁킁대며 오토바이를 부수는 우이웨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저 멍청한 자식.” 그러고는 씩 웃으며 진성수이에게 말했다. “너 같은 바람둥이가 그 여자인

테 진심일 줄 몰랐어. 근데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허치즈의 말에 진성수이는 고개를 젓히고 웃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담배꽂이를 바닥에 툥기며 말했다.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 곁에는 항상 여자가 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여자 마음이야.”

8

이제부터 내가 얘기를 들려줄게. 한 남자애와 그의 어머니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다.

남자애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오랫동안 폐병을 앓아왔기에 몸이 마르고 작았다. 그래도 모든 고난을 꺾고 이겨내며 성인으로 자랐다. 하지만 문화대 혁명이라는 혼란한 시기를 만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대학 입학시험이 회복된 이듬해, 그는 26살의 나이로 대학 입학시험에 참가했다. 그리고 성에서 가장 좋은 사범대학의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했다. 그 당시의 중어중문학과, 역사학과, 그리고 철학과 등 인문학과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재가 모였다. 바로 이런 대학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

그들의 만남은 특별했고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학에서 그는 수행하는 승려처럼 하루 종일 도서관에 박혀서 사회과학이랑 인문학에 관련된 책을 다 뒤져보았다. 어느 하루, 그는 쪽지에다 이런 글을 남겼다. ‘작가가 번역한 단락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이를 주제로 토론하실 분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학급과 이름도 적어 놓고 책 속에 끼워 두었다. 며칠 뒤, 번역문에 관한 토론 내용이 담긴 편지가 학급 사서함에 들어있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글씨가 이쁘네요.’라고 쓰여있었다. 그는 편지를 읽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위동에는 서예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서예가도 많았다. 그의 선생님도 명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서예에 능했다. 그는 편지에 남겨진 주소와 이름을 보고 번역문에 관한 생각을 써서 답장을 보냈다. 나중에 그들은 같은 학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담아 필담을 나눴다. 이렇게 둘은 설레는 만남의 날을 계속 미루려는 듯, 봄 내내 편지만 주고받았

다.

그는 그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캠퍼스 안의 인공호수 옆에는 수양버들이 바람에 넘실거렸고 저물어 가는 노을 아래서 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첫 만남은 설레면서도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둘은 이내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의 꽃이 만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그의 절룩거리는 다리를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빨리 다가왔다. 나라의 정책에 따라 그는 졸업 후 호구 소재지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니 도시에 사는 그녀의 집에서 당연히 그들의 연애를 반대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런 말을 했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했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만큼 드문 일이지.” 선생님께서서는 또 말했었다. “꽃이 어디서 피면 가장 이쁜지 알아? 첫 번째는 봄이고 두 번째는 추억이란단다.”

선생님께서서는 끝까지 좋아한다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은 선생님도, 그녀도, 모두 각자에게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전싱은 선생님의 영전에서 샤오핑에게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샤오핑에게 책 속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환한 웃음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밝은 눈동자는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빛났다.

선생님께서서는 설날 스무날쯤에 돌아가셨다. 그날의 하늘은 어두침침했고 선생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빈소는 교원 기숙사에 설치했다. 그리고 빈소를 지키는 사람은 선생님 본가의 조카랑 전싱, 그리고 샤오핑밖에 없었다. 침대 머리 쪽에는 오천 위안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이는 선생님께서서 장례를 치르라고 남긴 돈이었다. 선생님의 조카는 집안 여기저기를 뒤져 보았다. 하지만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책들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퇴직금으로 약도 사지 않고 아끼면서 몇몇 가난한 학생을 후원해 줬기 때문이었다. 이를 알게 된 선생님의 조카는 책장의 물건을 뒤적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다 있네.” 그러고 나서는 장례식에 더더욱 신경 따윈 쓰지 않았다. 그는 선

생님의 시신을 대충 화장한 후, 빈소를 설치해 놓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돈만 챙기고는 선생님의 유골을 물어버리려고 했다. 빈소에서 조카는 핸드폰의 음량을 크게 틀어 놓고 시골의 웃긴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동영상을 보며 바보같이 웃다가 웃음 포인트를 발견하면 깔깔거리는 소리를 내며 박장대소까지 했다. 그리고 선생님과 잘 알고 지내던 교직원들이 조문하러 와도 그는 본체 만체했다. 그러다가 책임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냉큼 달려가서 위로금을 달라고 재촉했다. 이에 전싱은 참다못해 선생님의 조카에게 자기가 빈소를 지킬 테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핸드폰을 보라고 했다.

미소를 지은 선생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전싱은 생각했다. 선생님께서는 드디어 날아갈 듯한 빠른 걸음으로 좋아했던 여자를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천국에서 어머니도 만나실 수 있겠다. 하지만,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밤에 선생님과 낯은 난로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눌 수는 없게 되었구나. 그는 선생님의 한평생을 돌아보고, 또 지금의 쓸쓸한 빈소를 둘러보면서 슬픈 느낌이 들었다. 슬픈 나머지 전싱은 분노했다. 그는 핸드폰에 있는 자신의 공식 계정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너희들은 어디에 있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너희들’이란 선생님께서 왕년에 가르쳤던 학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교육에 평생을 바쳤고 항상 심혈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이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 너희들이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여전하다면,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왜 선생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지 않는가?

전싱은 아직 삭제하지 않은 핸드폰 속의 동창생 단체 채팅방에 이글을 올렸다. 하지만 설 대목이라 답장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아마 대부분이 선생님의 얼굴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특하면 단체 채팅방에 각종 광고성 링크를 난발하던 사람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결국 한 여동창이 채팅방에서 한마디 했다. “걸으실 때 절룩거리는 그분이 바로 허우 선생님이야.” 그러자 다들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으며 채팅방에서 말했다. 그 절름발이? 생각났다. 절름발이라면 강의하다가 흥이 오르면 다리를 저는 것도 잊은 채 손짓, 발짓하며 넘어지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그 사람이지?

전싱은 손을 늘어뜨리고 방석 위에 꿇어앉았다. 하얀 양초의 심지가 갈라져서

불이 꺼질 듯 위태로웠다. 그러자 영정 사진 속 선생님의 웃는 표정도 그림자가 지며 얼른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초 심지를 조였다. 추운 밤, 이 작은 불씨는 선생님이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도록 새 양초를 바꿔가며 잘 지켰다.

글을 올리고 얼마 후, 샤오핑이 먼저 달려왔다. 그녀는 선생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향을 태우고 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난로 옆에 앉아 찐싱이 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듣고 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유품 정리를 도왔다. 장례식에서 태우려고 준비해 놓은 선생님의 옷들은 헤어져서 너덜너덜했다. 날도 추운데 선생님께서는 구멍이 송송 뚫린 스웨터를 입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옷들을 보고 샤오핑은 입을 열었다. “내가 마트에 다녀올게. 선생님께 따뜻한 옷 몇 벌 사서 태워야겠어.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지.”

샤오핑이 나간 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한 허치즈가 방에 들어왔다. 보아하니 술을 마시고 왔다. 그는 선생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향도 태우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촛불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피우더니 영정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 영감 죽었어?” 그러면서 담배를 몇 모금 더 피우더니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제사상에 툇 던지며 말했다. “당신이 가장 미워했던 학생이 왔어요. 조의금 드려요. 잘 챙겨가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찐싱을 향해 말했다. “예전에 우리 트집만 잡았잖아. 특히나 나랑 진성수이를 혼내고 말이야.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된장인지 콩인지 구분 못할 거라고.” 말이 끝난 허치즈는 깔깔댔다.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학교 다닐 때 그들 둘은 항상 여학생을 괴롭혔고, 수업 시간에는 수다를 떨면서 소란도 피웠었다.

허치즈와 진성수가 같은 사람에 대한 찐싱의 감정은 복잡했다. 미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싫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싫은 느낌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질투로 보였기에 쉽게 티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찐싱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권세에 빌붙었든, 남보다 빨리 사회를 꿰뚫어 봤든, 결국 시대에 맞게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두 기수 위야. 그리고 다 절름발이의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네 선배지.” 허치즈는 말하면서 방에 있는 유일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이 의자는 선생님께서 다리를 오므리고 책을 보시던 의자였다. “선배로서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는 말을 이어 갔다. “너랑 샤오핑은 대체 무슨 사이야?”

허치즈가 들어올 때부터 전싱은 계속 참고 있었다.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지 않아요?”

전싱의 말에 허치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보기 흉한 이를 드러내며 웅얼하게 계속 물었다. “둘이 잔 거 맞지? 저 계집애 몸이 하얗지? 정말 땡잡았어. 진성수이는 30만 위안어치의 결혼 예물을 갖다 바치고도 손 한 번 못 잡았는데. 너 이 새끼는…”

“꺼져!”

“왜 화를 내고 그래.” 허치즈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말했다. “농담이야, 농담. 둘이 잤든 안 잤든 상관없어. 따지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건, 앞으로 샤오핑을 멀리하면 돼.”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해?”

“이것 봐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꼭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모든 일에 도리를 따져. 근데, 매사에 다 ‘내가 왜’라고 해서 따져지겠어?” 허치즈는 담배 한 개비를 더 태우며 말을 이었다. “왜겠어? 생각해 봐. 네가 가난해서 그렇지. 결혼할 형편이 안 되면 이쁜 계집을 낚주어야지. 계속 차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누구를 좋아하든, 그 건 샤오핑 자유야. 당신들이 상관할 일 아니야!”

“그건 그렇지. 샤오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네놈은 달라.”

이렇게 둘은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때 샤오핑이 이불과 따뜻한 겨울옷을 사고 돌아왔다.

“어쭙, 이게 뭐야? 새 이불까지 사 왔구나. 빈소에서 둘이 같이 자려는 거야? 참 잘한다.” 허치즈는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전싱을 가리키며 또 말했다. “기억해라. 이 형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널 위해서야.” 그러면서 선생님의 위패 앞을 지나며 튀 하고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음험한 표정

을 지으며 또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왜 평생 여자를 멀리했는지 알아?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무슨 교육에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다리를 절룩거리게 게 다 소아마비 때문만은 아니거든. 듣기로는 어릴 때, 생산 팀에 있는 당나귀에 다리를 차였는데, 그때 다리만 차인 게 아니고 남자 거기도…”

“그 입 닥쳐! 꺼져!” 전싱은 허치즈가 방금 가져온 돈을 그에게 던지며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허치즈에게 다가가서 따지려는데, 샤오핑이 전싱을 말리며 말했다. “취한 놈이랑 무슨 말을 해.”

이튿날, 선생님의 몇몇 학생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전싱은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조카는 장례에 오신 손님한테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전싱은 양 반 마리를 사와 직접 양탕을 끓였고, 또 찐빵 백여 개를 사 와 오신 손님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싱은 양탕 한 그릇을 떠서 선생님의 영전에 올려놓았다. 옛날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 양탕은 선생님과 같이 겨울을 보낼 때 가끔 특식으로 해먹 던 요리였다. 그들은 양고기 요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양고기를 찢어 대파와 생강을 넣고 솥에다 끓이기만 했었다. 쉼후 마을의 양고기는 연하고 육즙이 많았다. 그래서 백숙을 만들어도 국물이 진하고 맛있었다. 둘은 양고기를 솥에 넣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기다렸다. 그러다가 고기향이 나오면 솥뚜껑을 열어 배불리 먹었다. 다 먹고 나서 둘은 입을 닦으면서 서로를 보고 웃음을 지었다. 그러고는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배가 꺼지면 둘은 또 따뜻한 국물에 면을 삶아 맛있게 먹었다. 이 모든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싱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말했다. “선생님, 이 양탕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사주신 음식입니다.”

식사 후, 모두가 같이 선생님의 유골함을 선생님의 고향으로 모셨다.

날씨는 여전히 무엇에 꼭 막힌 듯 답답하고 어두침침했다. 하늘에서도 여전히 눈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조상 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머니께서도 조상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묻혔다. 이에 선생님의 조카는 선생님의 어머니 무덤 옆에다 대충 구덩이를 파고 선생님의 못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발인이 끝나고 모두가 떠났다. 하지만 전싱과 샤오핑은 여전히 밤바람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초라한 묘비에는 쓸쓸한 몇 글자가 덩그러니 새겨져 있었다.

스승 허우전성(侯振聲)의 묘

학생 리진싱 우통평 등이 세움

9

이제 옛새만 있으면 설날이다. 후 씨는 안절부절못했다. 아들과 선을 본 여자가 키가 크고 예뻐서 농촌에서 그녀를 탐하는 남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후 씨는 어떻게든 이 혼사를 성공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신혼집이 거의 완공되자마자 예비 사돈에게 신혼집을 보러 오라고 초대했다.

여자 쪽 남자들은 무게를 잡으며 못 이기는 척하면서 데리러 온 차에 탔다. 이날을 위해, 후 씨는 현에서 요리사까지 불러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좋은 술은 물론, 현지에서 명망 있는 사람까지 초대하여 자리를 빛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불러야지? 공사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허치즈는 오후에 크레인으로 신혼집에 콘크리트판을 올려야 하니까 당연히 불러야 한다. 그리고 마을 위원회 서기(書記)도 명망 있는 사람이니 불러야 하고 자기 자신도 있을 거니까 이 정도면 됐다. 마지막으로 술자리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사람이 있었으면 했는데, 마침 진성수이가 시간이 있다고 하니 후 씨는 완벽하다며 웃음을 지었다.

여자 쪽 사람들은 공사장 앞의 공터에 설치한 가설 막에 들어가 있었다. 가설 막 안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 있어, 추운 날이지만 아주 따뜻했다. 그리고 맞은편 망산(莽山)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과 음식이 다 차려졌다. 술자리에서 후 씨는 끊임없이 진성수이를 떠받들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진성수이는 누가 옆에서 추어올리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사람이다. 후 씨의 말에 흥이 난 진성수이는 여자 쪽 친척들과 수다를 떨면서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 후 씨는 진성수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연신 고맙다고 했다.

후 씨는 여자 쪽 친척과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나서 공사장으로 갔다. “다들 수고했어. 이제 밥 먹자. 술이랑 고기가 있으니까 다들 배불리 먹고 해.”

“네, 벌써 점심이네요. 가자, 다들 밥 먹고 하자.” 허잉이 가장 먼저 호응했다.

마을 사람들은 후 씨네 공사를 점심때까지 도와주었다. 비록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설 대목의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하는 거라 다들 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얼굴과 손을 씻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 후 씨가 나눠주는 담배를 받으면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콘크리트판을 한 층만 더 깔면 지붕을 덮는다. 지붕을 덮으면 후 씨는 또 서둘러 타일을 붙이고 벽을 도배해야 한다. 그래야 다가오는 봄에 아들의 약혼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혼집이 거의 완공됐다고 예비 사돈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후 씨는 예비 사돈과 술을 몇 잔 더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술을 권하러 한 바퀴 돌았다. “오후에 콘크리트판을 올리는데, 다들 수고해 줘.” 말이 끝난 그는 손에 든 잔을 비웠다.

여자 쪽 친척들은 진성수이과 허치즈, 그리고 위원회 서기 세 명이 돌아가면서 술을 권하다 보니 다들 취해 비틀거렸고 흥도 나 있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마신 결과, 여자 쪽은 후 씨네와 약속했다. 후 씨 아들과의 결혼은 천생연분이니 여자 쪽도 더 이상 다른 선 자리를 보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신혼집이 완공되면 결혼 예물을 받고 결혼 날짜를 정하면 된다고 했다.

술자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후 씨도 한시름 놓았다. 그제야 그는 그동안 신혼집을 짓느라 쌓인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리고 유일한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돈을 물 쓰듯 한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진성수이네도 더 이상 술을 권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 측 친척들과 담배를 피우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 어깨동무까지 해가며 수다를 떨었다. 이렇게 술잔과 식기가 널브러진 술자리에서 모두가 흥이 나 있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술을 권했으니, 진성수이와 허치즈도 술자

리를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술을 권해야 했다. 그들은 술상을 돌아다니다가 허잉이 있는 술상에 왔다. 술을 권하기도 전에, 허잉이 시시덕거리며 자기 술잔과 진성수이의 술잔을 부딪치며 말했다. “진 사장님, 한잔하세요. 저는 조금만 마실게요.” 진성수이는 발로 그를 툭 치더니 담배 한 개비를 주며 웃었다. “혼자 마셔. 너랑 마시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왼손 앞으로 다가갔다. “여기서 가장 박식한 사람인데, 나랑 한잔하자.”

사실 이날, 왼손은 일만 도우러 온 것이었다. 다들 술을 마시면서 떠들든 말든, 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었다. 그래서 진성수이가 술을 권하자, 그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고 잠깐 주춤했다. 이에 난처한 진성수이는 웃으며 말했다. “배운 게 많은 사람이라, 나 같은 못 배운 사람과 마시기 싫은가 봐.” 그러자 모두가 질책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성수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먼저 잔을 비울게.” 이 상황에서 계속 거절하면 사람들은 그를 치사한 놈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옆에서 허잉이 왼손의 잔을 채우며 마시라고 재촉했다. 이에 왼손은 멧쩍은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그는 일부러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주량이 약해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금방 취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왼손을 보고 진성수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왼손, 지금 일이 없어서 집에 있다고 들었어. 설 쉬고 나한테 와.”

왼손은 입을 다물었다.

“동창생, 우리 회사는 너 같은 리더가 필요해. 설 쉬고 와라. 넉넉하게 챙겨 줄게. 밖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을걸.”

이때 허잉이 옆에서 부추겼다. “그건 맞아. 임금 챙겨주는 건 진 사장님이 최고지!” 그리고 술잔을 채우더니 또 말했다. “왼손, 어쨌든 이 술은 마셔야 해!”

“형, 더 붓지 말아요. 제가 술 못하는 거 잘 알잖아요.” 하지만 왼손이 더 이상 거절하면 모두의 분노를 일으킬 것만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왼손은 잔에 가득 찬 술을 비웠다. 술이 넘어가자마자 그는 바로 토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진성수이가 잔을 채우더니 목을 젓혀 마셔버렸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잔을 비웠다. 진성수이가 다 마신 술잔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허치즈가 술병을 들고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사장 둘이 와서 술을 권하

니 모두의 체면이 섰다. 허치스는 모두에게 번지르르한 인사말을 하고 나서 왼손 앞에 다가갔다. “며칠 전, 선생님 발인하는 날에 일이 있어서 못 갔어. 정말 미안해. 사과 의미로 내가 석 잔 마실게.” 이렇게 속에도 없는 말을 하는 허치스를 보고 왼손은 술잔을 깨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허치스가 꿀꺽하며 석 잔을 다 마셔버리자, 모두가 신이 나서 왼손에게 잔을 비우라고 끌어당겼다. 그러자 허영도 옆에서 계속 술을 부어댔다. 어쩔 수 없이 왼손도 연이어 석 잔을 마셨다. 술이 들어간 그는 머리가 빙빙 돌면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진성수이는 걸려 오는 전화를 받고 나서 말했다. “다들 마시고 있어. 나는 일이 있어서 갔다 올게. 이따 보자.”

“일은 무슨, 그냥 황려우 마을 장인어른 집에 간다고 하면 되죠.” 입이 가벼운 허영이 농담조로 까발렸다. “샤오핑이 집에서 술상을 준비해 놓았어요. 진사장님이랑 한잔하고 싶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바탕 웃어댔다.

진성수이도 같이 웃어대면서 왼손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인사말을 나누고 취한 몸을 움직이며 동쪽으로 향했다.

“성수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밥이 다 되면 샤오핑이 데리러 갈려고 했는데, 네가 오늘 술자리가 있다고 해서 못 갔어.” 우 씨는 진성수이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인사를 하면서 마실 차를 준비했다. 주방에서 밥하던 어머니도 잠깐 나와 인사하고 진성수이를 보며 눈짓했다. “샤오핑은 지금 방에 있어. 먼저 들어가서 얘기 나누고 있어. 아줌마가 썬라탕(酸辣湯) 끓여 줄게. 술 깨는데 최고야.”

진성수이는 방에 들어갔다.

샤오핑은 방에서 베갯잇에 십자수를 놓고 있었다. 진성수이를 보자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부어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표정 없이 침대에 앉아 계속 원앙 십자수를 놓고 있었다.

“어제 우이웨이를 봤어. 아니, 처남을 봤어.” 진성수이는 말을 걸었다. “처남이 광산 회사에 입사 서류를 냈다고 하더라. 내가 얘기를 잘해놓았으니까 다들 잘해 줄 거야.”

“응.” 그녀는 수를 놓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진성수이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곧 설인데 네

웃이 좀 수수한 거 같지 않아?” 이 말에 샤오핑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 보았다. 그러자 그는 급히 말을 바꾸었다. “아니야, 수수해도 좋아. 이빠.” 그러면서 씩 웃었다.

그녀는 입을 닫았다. 진성수이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두 다리를 짝 벌린 채 샤오핑 앞에 앉아 있었기에 그녀가 나가려면 진성수이의 다리를 건너가야만 했다. 이렇게 그는 샤오핑 앞에 딱하니 앉아서 일부러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 같은 민감한 부위 앞을 왔다 갔다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피할 곳이 없었다.

참다못한 샤오핑은 창문 쪽을 절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점심밥 아직 안 됐어?”

어머니는 밖에서 큰소리로 대답했다. “금방 되니까 좀만 기다려.”

진성수이는 실눈을 뜨고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녀를 쳐다보며 더욱 바짝 다가갔다. “무슨 십자수야?” 그는 십자수를 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얼굴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자 술 냄새가 샤오핑의 코를 찔렀다. “이쁘네.” 진성수이는 말하면서 더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월앙이 한 쌍이네. 보기 좋다. 결혼하면 베고 자자.” 그러면서 샤오핑과 입 맞추려고 했다.

샤오핑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다. 그리고 진성수이를 이리저리 피했지만, 그가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샤오핑은 피할 곳이 없게 되었다. 그래도 절대로 침대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억지로 버텼다. 방에서 소리 지르면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이 순간 진성수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런데 그가 핸드폰을 냉큼 꺼버리더니 별겁게 취한 눈으로 다가와 샤오핑의 베갯잇을 보려고 했다. 그녀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베갯잇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십자수 바늘로 진성수이의 손바닥을 찔렀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 베갯잇을 뺏겨버렸다. “좀 있으면 가족인데, 왜 이렇게 모질게 굴어.” 진성수이는 바늘을 든 채 노기가 찬 얼굴로 서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손바닥의 피를 입으로 빨았다. 샤오핑은 베게 밑에 둔 가위가 생각났다. 요즘 웬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그녀는 가위를 베게

밑에 두고 잤다. 가위를 손에 넣자 샤오핑의 두근거리던 가슴은 다소 안정되었다.

샤오핑은 가위를 손에 움켜쥐고 죽일 듯이 그를 노려보았다. 이런 그녀를 바라보던 진성수이의 얼굴에서는 차가운 웃음이 비꼰다. 그는 베갯잇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것은 원앙의 물놀이 십자수다. 맨 밑에 이름도 있었다. 아주 작고 은밀하게 수놓았지만, 바늘 방향이 선명하므로 한쪽은 ‘우통평’, 한쪽은 ‘리전싱’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순간 방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진성수이는 노발대발하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씹씩대며 베갯잇을 그녀 앞에서 흔들고, 또 흔들었다. “좋아.”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더니 베갯잇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방을 나가면서 또 말했다. “네 마음 속에는 그 녀석밖에 없다는 거지!”

마당에 나온 진성수이는 웃으며 다가온 그녀의 부모를 향해 말했다. “아저씨, 아줌마, 마지막으로 샤오핑에게 결혼할 건지 물어봐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다.

공사장에서 후 씨와 예비 사돈은 배부르게 먹고 나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난로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며 신혼집 지붕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들 진성수이의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눈치챈 허치즈는 진성수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별일 아니잖아. 지켜봐. 내가 대신 혼내줄게.” 그러고는 담배꽂초를 끄고 휘파람을 불며 크레인에 올라탔다.

콘크리트판을 지붕으로 옮기려면 먼저 크레인에 있는 고리를 콘크리트판 양쪽에 걸어 놓고 지붕 높이로 올린 다음, 옥상에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곳으로 지브를 돌리면서 콘크리트판을 천천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다른 두 사람이 콘크리트판 양쪽의 고리를 빼버려야 한다. 허잉에게 옥상에 올라가라고 했더니 “저는 못 하겠어요. 너무 높아서 머리가 어지러워요.”라고 말하며 머리가 어지러운 시늉을 했다. 이에 십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발로 그를 툭쳤다. 어쩔 수 없이 십장이 옥상 한쪽에서 손을 흔들며 콘크리트판을 내리는 방향을 가리키기로 했다. 그리고 바이순 씨와 전싱은 옥상에서 콘크리트판 양쪽의

고리를 빼기로 했다.

공중에 있는 콘크리트판은 나뭇잎이 바닥에 떨어지듯 살포시 옥상에 내려졌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펼쳐지며 지붕의 빈틈을 메꿔주었다. 허치즈는 아주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크레인을 작동하며 바닥의 콘크리트판을 하나씩 옥상으로 옮겼다.

방 하나에 콘크리트판 아홉 개가 들어가고 이미 방 세 개를 다 덮었다. 마지막으로 방 하나가 남았는데 거기도 몇 장만 더 덮으면 끝난다. 전싱은 몇 장 안 남은 콘크리트판을 보며 한시름 놓았다. 그는 일이 끝나면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싶었다. 점심에 술을 너무 급하게 마셔서 목도 마르고 머리도 어지러운 상태였다.

전싱은 고개를 들고 이마 위의 땀방울을 닦아내며 저 멀리 강가를 바라보았다. 그쪽은 샤오핑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저 강가에서 그녀와 있었던 시간을 생각하니 전싱은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십장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십장은 손을 힘껏 흔들며 허치즈에게 지브를 멈춰 달라고 손짓했다. 이에 전싱은 고개를 돌렸다. 악! 천천히 내려오던 콘크리트판이 갑자기 지브에서 위아래로 몇 번 요동치더니 좌우로 심하게 흔들거렸다. 그러다가 한쪽 고리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러자 콘크리트판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더니 건물 위로 향했다. 이 순간 콘크리트판은 더 이상 천천히 내려오던 그 나뭇잎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 근에 달하는 묵직한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십장은 옥상에서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다.

너무 놀라 얼떨떨해진 바이순 씨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전싱, 빨리 비켜! 비켜!”

허치즈도 놀란 듯 정신없이 핸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며 몹시 당황했다.

이 순간, 사다리 위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일하던 모두가 너무 놀라 입을 썉 벌린 채 보고만 있었다. 그 콘크리트판이 전싱을 덮치는 것을.

옥상 변두리에 서 있는 전싱은 콘크리트판이 늘어진 천처럼 붕 떠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진성수이가 가고 나서 샤오핑은 그가 남긴 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느

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불안한 나머지, 샤오핑은 가위를 들고 옆에 있는 디완 마을로 달려갔다. 길옆의 나무들이 뒤로 넘어지는 착각이 올 정도로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다. 달리는 내내 눈물이 그녀의 앞을 가렸다. 샤오핑은 손에 가위를 들고 속으로 외쳤다. “진성수이, 허치즈, 다 죽여버릴 거야…”

울면서 달리다 보니 목에 걸린 옥 목걸이가 샤오핑의 옷 속에서 튀어나왔다. 불그스레한 옥 추가 빨간 불씨와도 같았다. 샤오핑은 눈물을 흘리며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진성수이를 보고 울면서 외쳤다. “진성수이… 죽여버릴 거야…”

이때 며칠 동안 흐렸던 하늘에서 드디어 작은 우박이 질금질금 내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의 첫눈이 내렸다. 거위 털 같은 눈꽃이 휘날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이 순간, 전성도 하나의 눈꽃처럼 옥상에서 떨어져 내렸다.

판쑤잉(樊素英)

1

판쑤잉(樊素英)은 나이가 든 후에는 옛날 생각이 날 때마다 입 안에 사탕을 넣었다. 훌쭉한 잇몸에 단맛이 느껴져야만 옛날 추억을 다시 꺼내도 참을 만했기 때문이다.

쑤잉 인생의 시작은 빛났었다. 집안 형편이 이웃에 비해 좋았고 막내딸로 태어나 아버지와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쑤잉은 어릴 때부터 나긋나긋하고 순진해서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맑고 그윽한 두 눈을 깜박거리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녔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에 흐르는 맑은 강물처럼 청량하고 듣기 좋았다. 게다가 공부도 잘했기에 그 당시 사범학교에 합격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었다. 그리고 졸업하면 현(縣)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그다음으로, 지역에서 비교적 잘나가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본분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간다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산아 정책에 따라 자녀 한 명만 낳고 애가 크면 퇴직할 나이가 될 것이니, 그때는 댄스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의 소소한 낭만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빛나는 인생의 도미노가 첫 번째 코너에서 어긋나 버렸다.

14살 때, 어머니가 앓아눕더니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쑤잉의 인생은 여기서 막을 내렸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쑤잉은 사범학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졌다. 고작 4점 차이였다. 그 후, 현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재수생을 모집했는데, 진학률이 꽤 높은 학교였다. 쑤잉은 재수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교장 선생님께 선물을 들고 찾아가 사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를 잃고 슬픔 속에 빠져있었다. 부모님은 금슬이 매우 좋았었는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자 아버지는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지? 그래서 막내딸의 부탁에도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을 뿐이었다. “재수하고 싶으면 네가 가

서 사정해 봐.” 아버지는 부탁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체면을 중요시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딸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딸의 행동이 다 용서됐지만,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니 아버지의 좁은 가슴은 더 이상 딸의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쑤잉은 겨우 14살로, 줄곧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왔고 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교장 선생님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굴 찾아갈 수 있겠는가?

결국 쑤잉은 학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쑤잉은 집안일도 하고 남동생도 돌보며 언니, 오빠의 일까지 도왔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는 인생의 길을 아버지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쑤잉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집에 있는 몇 년 동안, 현에서는 취업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야간직업훈련원을 개설했는데, 취준생을 위한 농업기술, 기계 수리, 양식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 쑤잉이 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공부 때문이 아니라 기분을 전환하고 싶어서, 그리고 집안일을 피하고 싶어서였다. 바로 여기서 그녀는 장하이싱(張海興)을 만나게 되었다.

하이싱이 그녀에게 준 첫인상은 ‘촌스럽다’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비록 촌스럽기는 했으나 그 안에는 대범함이 살아있었다. 그는 다른 농촌 마을 청년처럼 도둑놈같이 두리번거리는 눈에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생활고를 겪어 옹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하이싱은 밤틀 머리에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가지고 있었고,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다만 피부색이 거무스름했다. 사실 쑤잉처럼 하이싱도 사범학교에 합격했지만, 누군가 그의 입학통지서를 빼돌려 위장 입학해 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집에서 농사만 지었다. 그러다 보니 피부색이 구릿빛으로 변했다. 그러다가 이런 직업훈련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기뻐다 싶어 농사일을 내려놓고 공부하러 왔다. 하이싱은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노트도 열심히 정리하고 깨달은 바도 적으며 질문도 많이 했다.

언제부터인가? 쑤잉은 아픈 기억을 더듬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더더욱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서로 인사만 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인연이 닿은 두 사람은, 같은 나이에 같은 처지, 그리고 똑같은 막막함과 열망을 지니고 있었기에 갑갑한 현실 속에서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는 마치 두 개의 전선이 만나, 순간 찬란한 등불이 켜진 것만 같았다.

쑤잉의 연애 소식을 들은 언니와 오빠는 하이싱 집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장 씨네는 형제가 여럿이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하이싱은 부모와 낡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동서 간의 불화로 말썽도 많다고 한다.

아버지는 담뱃대를 물고 침묵하셨다. 침묵은 곧 반대를 의미했다.

만약 아버지가 한발 물러서서 먼저 둘의 교제를 허락한 뒤, 나중에 다시 쑤잉을 설득하였다면 아마 쑤잉도 귀담아들었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담뱃대를 몇 번 두드리고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다. 누가 봐도 딸을 비웃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자신에게 화가 나니까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쑤잉은 진지했다. 집안의 반대가 심할수록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자극되었다.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좋아할 거니까요. 재수 못하게 망쳐놓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둘의 사이는 정말 뜨거웠다. 여기서 더 뜨거웠다가는 결혼 전에 애부터 갖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딸의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다. 목공 솜씨가 뛰어난 아버지는 직접 대패질하고 두드리며 가구를 만들었고, 반들반들 광택까지 냈다. 그리고서 딸에게 할 말을 큰아들더러 대신 전하라고 했다. “딸아, 내가 선택한 것이니 잘 생각하거라.”

그 말을 듣자, 쑤잉은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대답했다. 네, 제 선택이니까 좋은 나쁜든 제가 다 받아들일 거예요.

사실, 시집을 간 3일째부터 쑤잉은 후회되기 시작했다. 시집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일들 때문이었다. 하이싱 건 줄 알았던 신혼집은 빌린 집이었고, 심지어 집안의 의자와 책상도 이집 저집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거기에다 쌀독마저 텅 비어있었다. 이 집안에 유일하게 괜찮은 물건이라곤 그녀가 혼수로 가져온 회화 나무로 만든 가구뿐이었다.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에서 악역

을 맡는다 해도 정의롭게 보일 남자, 바로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거짓으로 그녀와의 결혼에 성공했다.

하이싱은 빌려온 물건을 집안에서 하나씩 들고 나갔다. 마지막에는 신혼 침대까지 들고 나가버렸다. 방안이 텅 비자, 쑤잉의 마음도 텅 비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기구한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몰랐다. 당시 쑤잉은 너무 어이 없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 “이 집안에 내 물건이 있긴 한 거야?”

하이싱은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거렸다. 쑤잉은 이내 깨달았다. 앞에 서 있는 운순한 건지, 교활한 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껌다리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진 것 없는 둘은 직업훈련원에서 배운 기술로 식용 버섯도 키우고, 약재도 심고, 목화도 재배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쑤잉의 나긋나긋한 성격과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만 보였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고달픈 삶이었다. 낡은 지붕은 비만 오면 빗물이 여기저기에서 새어들어 받을 양푼도 모자랄 정도였다. 거기다가 아들 둘을 낳고 나니 콧노래를 부를 겨를도 없이 바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이에 겁이 난 그녀는 피임 시술까지 해버렸다.

이렇게 힘들게 사오 년을 고생한 끝에, 그들은 드디어 집 지을 돈을 모았다.

쑤잉은 결혼 후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러온다는 것도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제 새집을 지었으니, 그녀는 조금 떳떳한 느낌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목공 일을 부탁했다. 딸을 본 순간,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나긋나긋했던 어린 딸이 이제는 피부색도 검게 변했고 허리도 굽어졌다. 거기다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혈겁고 거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딸의 얼굴을 보니 말도 못 하게 푸석푸석해졌고, 그토록 맑았던 두 눈은 흐릿했으며 이빨마저 누렇게 변해버렸다. 이런 딸의 옆에는 큰손자가 진흙 놀이하느라 흙투성이가 되었고, 작은손자는 발가벗은 채 담요 위에서 뒹굴며 앵앵 울고 있었다. 마당 구석에 넣어놓은 속옷들은 모두 너덜너덜하게 헤어져 있었다. 이에 아버지는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실 쑤잉은 아버지가 오시면 비아냥거리며 호되게 꾸짖을 거로 생각하고 단단히 맞설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울음에 굳게 먹었던 마음이 순간 무너지면서, 그녀도 등을 돌려 고개를 젓히고 통곡했다.

이렇게 썩이는 자신의 반항과 고집으로 이룬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대가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웠다.

이때 하이싱이 건축자재를 싣고 집에 들어왔다. 장인어른을 보자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반갑게 달려가 인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술 사느니, 장 보러 가니 하며 장인어른을 잘 대접하려고 서두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정중했다. 이렇게 술과 음식을 한 상 차려놓았는데 아버지가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하이싱은 쓴웃음을 지으며 장인어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며 식사를 권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았지만, 물 한 모금도, 반찬 한 입도 대지 않았다. 그러고는 돈 천 위안을 꺼내 식탁 위에 놓고 일어섰다. 여기 오실 때 40리 길을 걸어 온 아버지는 이제 또 40리 길을 걸어가야 했다. 떠나기 전, 아버지는 하이싱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을 입구를 지나 황사에 뒤덮인 길을 허둥거리며 걸어가던 아버지는 철썩하고 자기 뺨을 쳤다. “내가 죄인이야. 딸을 망쳤어.”

한 상 가득 차린 음식을 보며 하이싱은 너무나도 뻔뻔해서 상 위의 돈뭉치를 던져버리려고 움켜쥐었는데, 돈이 장인어른의 땀으로 젖어있었다. 그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술병을 열어 혼자서 꿀꺽꿀꺽 들이켰다. 술에 취한 하이싱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썩잉에게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그가 썩잉에게 잘해준 게 없는 건 사실이었다. 썩잉을 비바람도 막지 못하는 허름한 집에 살면서 애도 돌보며 집안일과 밭일을 끝도 없이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이싱은 울어서 퐁퐁 부은 두 눈을 닦으며 말했다. “날 믿어. 꼭 잘살게 해줄게.”

썩잉은 눈물을 머금고 그에게 물 한 잔 부어 주었다. 바로 이 취중 맹세 때문에 그녀는 평생을 바쳤다.

하이싱은 확실히 맹세한 대로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다.

집을 다 짓고 나니 그는 또 빛을 빨리 갚으려고 닭과 오리 수백 마리를 키웠고, 식용 버섯 하우스를 세 개나 하면서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러다 보니 고달픈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 보였고, 이런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이싱은 검게 야위었지만, 걸음걸이는 바람처럼 쑹쑹했고 피곤한 몸은 타오르는 숯불처럼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의 반짝이는 두 눈은 마치 숯불 속의

가장 뜨거운 불씨처럼 빨갱게 충혈됐지만,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이에 썬잉은 걱정되어 말했다. “당신도 좀 쉬면서 해.” 하지만 하이싱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굶주린 늑대처럼 두 눈을 번쩍이며,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는 목화를 팔면 얼마 벌 수 있는지, 닭과 오리가 우량품종이니 잘 키우면 얼마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핑이버섯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하우스 세 개를 다 수확해서 팔면 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다. 집 지을 때 낸 빚을 갚고도 여윌돈이 남을 것 같았다. 하이싱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썬잉에게 말했다. “남은 돈으로 폭신한 소파도 사고, 레코드플레이어도 사자. 당신은 소파에 누워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소설도 보고, 디저트도 먹고…” 썬잉은 하이싱의 말을 마음껏 상상하면서 생각했다.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었구나, 이 남자를 믿고 산 것이 옳은 선택이야, 후회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눈꽃이 그녀의 눈두덩을 덮을 때까지, 하이싱이 해 준 말들, 그의 눈빛과 손짓, 뜨거운 말투, 이 모든 것이 썬잉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그 해는 눈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다. 썬잉은 집에서 애를 돌보고 하이싱은 재배한 버섯을 시내의 식당과 시장에 납품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빴다. 사고 난 그날, 안개가 자욱했다. 거기다가 들은 닭과 오리 수백 마리를 분류하느라 밤새웠다. 썬잉은 하늘을 보고 말했다. “안개가 걷힌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날, 길 위는 녹지 않아 빙판인 데다가 안개가 자욱했기에 그녀는 걱정됐다. 하지만 하이싱은 이미 시장의 도매상과 약속한 터라 남의 장사에 폐를 끼치기 싫다면서 제시간에 배달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러고는 걱정하는 썬잉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매일 다니는 길인데 뭐.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녀에게 기운이 넘치는 애들이 깨어나기 전에 눈 좀 붙이라고 당부했다. 그의 고집에 못 이겨 썬잉은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들었다.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이다. 잠이 들자마자 썬잉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트럭을 몰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는 마치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해 있었다. 썬잉 앞에 다가왔는데도 트럭을 세우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아무리 부르고 손을 흔들어봐도 못 들은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하이싱이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

의 앞을 지나가던 찰나, 썬이는 입을 비명을 질렀다. “으악!”

그 찰나, 썬이는 똑똑히 보았다. 하이싱의 등 뒤에서 하얀 손이 튀어나오더니 그의 두 눈을 가렸다는 것을.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열린 웃음을 지으며 계속 트럭을 몰고 갔다.

썬이는 꿈에서 놀라 깨어났다. “으악!”

바로 그때, 하이싱은 건널목 다리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개 자욱한 맞은편에서 초록색 트럭이 갑자기 나타났고, 트럭을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2

썬이는 운명에 쉽게 굴복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타고 있는 운명이라는 차가 아무리 낡았고,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그리고 가는 길이 아무리 질퍽거리어도 참고 견디며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운명이란 차가 썬이를 도중에 내려놓고 가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 놓은 거라곤 여섯 살 난 큰아들 장쯔젠(張自健)과 두 돌도 안 된 작은아들 장얼량(張二良) 이었다. 거기다가 집 지을 때 진 빚도 있었다.

하이싱이 죽자, 썬이는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의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하루 무정하게 흘러만 갔다. 90년대 초반엔 농촌에 아직 도시에 일하러 가는 붐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달리 살 방도가 없던 썬이는 어쩔 수 없이 마을 입구에다 구멍가게를 내어 각종 양념장과 조미료, 그리고 바늘과 실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다. 낮에는 밭일해야 하니 매점은 저녁에만 열었다.

우즈주(吳支柱) 집이 매점 근처에 있다 보니 담배나 식초 같은 것을 자주 사러 왔다.

썬이의 얼굴은 텅텅 부어있었고 낯 나간 사람처럼 항상 멍하니 있었다. 가끔 누가 인사해도 그녀는 생각에 빠져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잠시 후에야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안하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바로 이 웃음이 우

즈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즈주에겐 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리(李) 씨를 친구로 생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가 있었던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었다. 그것은 아내가 능력 없고 의기소침한 우즈주를 버리고 리 씨와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버린 것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우즈주가 대체 무엇을 원망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즈주와 리 씨의 첫 만남부터 얘기해야 한다. 당시 리 씨는 현에서 공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추어급 공연자들을 모아 놓고 하는 공연이었다. 그러다가 비수기가 되면 주변 마을로 내려와서 서커스, 전통 희곡, 민요 등 종합 공연 무대를 펼쳤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는 돈주머니를 들고 전날 밤의 공연료를 받으러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돈을 못 내는 사람한테는 공연료로 식량도 받았다. 그런데 공연을 볼 관중을 모으고, 또 공연료를 받으러 다니려면 마을에서 인심 좋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했다. 그래서 우 씨네 마을에 올 때마다 리 씨는 우즈주네 집에 머물렀고 그의 아내가 해준 음식도 먹었다. 그리고 공연 당일, 우즈주는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았고, 돈 받을 때도 리 씨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연을 보고도 안 봤다고 우기며 돈을 안 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우즈주는 집집마다의 형편이 어떤지, 식구가 몇이인지를 훤히 알고 있기에 온 가족이 공연을 봤는데, 일부러 누락하고 돈을 적게 낼 경우, 우즈주는 리 씨에게 눈짓하면서 둘은 끝까지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바쁘게 돌아다녔다. 사실 우즈주가 리 씨를 도와주는 이유는 수고비 몇 푼 때문이 아니었다. 한가할 때 호금(胡琴)을 타기 좋아했던 우즈주는 현에서 온 호금 사부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날이 많아지면서 리 씨가 오히려 자기의 아내와 바람이 나버렸다. 이에 우즈주는 분개했다. “이 씨,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럼, 친구 아닌가? 이게 친구가 할 짓이야?”

그 후, 우즈주는 호금을 부숩버렸고 애절한 사랑 노래 따윈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우즈주는 혼자서 딸을 키우는데, 고생은 고사하고 실밥 터진 옷이나 구멍 난 이불을 꿰맬 때가 가장 힘들었다. 사실 우즈주는 자기의 바짓가랑이가 터져도 개의치 않았다. 보기 흉하면 바늘로 아무렇게 꿰매 입으면 된다. 그가

고민됐던 건 딸의 옷이었다. 너무 거칠게 껴매버리면 딸이 눌림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럴 때마다 우즈주는 아내를 원망하는 대신 리 씨를 한바탕 욕하고 나서 한숨을 쉬며 쭈잉을 찾아갔다.

쭈잉은 바느질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았기에 학교 다닐 때 언니 따라 바느질을 몇 년 하다 보니 웬만한 옷과 신발은 다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언니만큼 뛰어난 솜씨는 아니었지만, 꽃 모양의 수도 놓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매번 우즈주의 바느질 부탁을 들어주었고 바느질이 끝날 때마다 우즈주는 그녀에게 현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에서 사 온 사탕 한 봉지를 건네곤 했다. 그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리 씨 본가에 갔었다. 본가에는 리 씨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개자식이 어머니를 보러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 3년 동안 계속 불시에 들이닥쳐 봤지만, 리 씨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아질 때까지 리 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집을 나가고 돌아온 적이 없어. 전화 한 통도 없고 말이야.” 자상한 리 씨 어머니의 말이 거짓말 같진 않았다. “독한 놈. 정말 매정한 놈 같은 이라고.” 그렇게 리 씨 어머니는 아들을 탓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둘은 서로 마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 우즈주는 가끔 리 씨 어머니를 도와 연탄도 나르고 수도가 고장 나면 고쳐주기도 했다. 그리고 일이 끝나 식사 시간이 되면 리 씨 어머니는 밥 먹고 가라고 권해서 몇 번 먹었다. 하지만 리 씨 집을 나올 때마다 우즈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리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씨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매번 리 씨를 만나지 못한 그는 온 김에 백화점에 들러 옷도 사고 사탕도 샀다. 옷은 딸한테 주고 사탕은 쭈잉한테 주었다.

쭈잉은 평생 단 것을 좋아했다. 하이싱과 살 때 삶이 너무 힘들어 먹을 겨를도 없었다. 물론 지금도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그런데 우즈주는 그녀에게 사탕을 사다 줄 생각을 했다. “나는 한 알만 먹으면 돼. 나머지는 딸한테 줘.” 그녀가 말했다.

“사탕은 더 있어.” 우즈주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애한테 줄건 남겨놓았어.”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다.

사탕을 입 안에 넣은 쭈잉은 마치 사탕이 진주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천천

히 녹여 먹었다. 그녀는 옷을 다 입고 우즈주에게 주었는데 그는 옷을 받고 바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마를 찌푸리며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다음엔 안 사와도 돼.” 썬잉이 말했다. “바느질이 힘든 일도 아닌데.”

이에 우즈주는 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깊이 팬 그의 이마주름 때문에 울상처럼 보였다. “비싼 것도 아닌데 뭐.”

“계속 찾아갈 거야?” 썬잉이 물었다

이에 우즈주는 대답했다. “계속 찾아갈 생각은 없어.” 그러면서 말을 이었다. “설령 잡았다 해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막말로, 끌고 왔다 하더라도 더는 같이 살 수 없잖아. 나도 알고 있어. 그냥 역장이 무너져서 그래.”

“그럼, 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야?”

“원망만이 아니야. 이유가 따로 있어. 그들이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이혼을 못 했거든.”

썬잉은 입을 다물었다. 입안의 사탕에서 갑자기 느끼한 단맛이 돌았다. 우즈주는 자신이 이혼해야만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 썬잉도 우즈주의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즈주는 담배를 피우고 썬잉은 입안의 사탕을 녹이고 있을 때 누군가 기침 소리를 크게 내며 물건 사러 들어왔다.

스경성(石耿生)이었다.

우즈주는 화가 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스경성을 보더니 검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옷을 들고 나가버렸다.

스경성은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썬잉을 나무랐다. “저런 사람을 왜 상대해? 남자 같지 않은 놈을. 아내가 왜 도망갔겠어? 저런 못난 놈이랑 누가 살고 싶겠냐?”

썬잉은 아무 표정 없이 돈을 받고 고급 담배 한 갑을 건네주며 말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 우 씨네 애가 알면 어찌려고.”

이에 스경성은 바닥에 침을 “뿜.”하고 내뿜더니 썬잉의 말을 가로챘다. “친자식이긴 한 거야?”

스경성이 와야만 썬잉 주변이 조용해진다.

과부로 사는 것은 홀로 삼켜야 하는 말 못 할 고통이었다. 하지만 같은 마을

에 사는 남자에게 과부는 거저 생긴 선물 보따리와도 같은 것이다. 차마 마음대로 풀어보지 못했지만, 몰래 훑쳐보거나 구경했다. 그런데 슬프게도 썬잉은 그들의 이런 음탕한 마음을 이용해 매점 물건을 팔아야 했다. 그녀는 매점 안에다 작은 공간을 내어 책상 몇 개를 놓고는 비 오는 날에 남자들이 모여 카드를 치거나 수다를 떠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만 그녀는 술과 담배, 음료수 등을 많이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스경성은 매우 싫어했다. “완전 아수라장이네!”

이에 썬잉은 웃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스경성은 감옥을 갔다 왔다. 말로는 거리에서 스경성이 세 명과 맞짖 댔는데 그 셋이 다 얻어터져 무릎 꿇고 짹짹 빌었다고 한다. 출소한 후 그는 마을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었다. 당시 스경성은 집에서 대대로 물려 온 땅 몇 마지가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밭일을 하는데, 등에서 땀방울이 후두두 흘러내렸고 힘센 팔뚝을 휘두르며 밭일을 손쉽게 해냈다. 그가 심은 농작물은 푸른 빛을 띠며 한 고랑씩, 또는 한 두렁씩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다. 이는 마치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듯했다.

스경성의 밭과 썬잉의 밭은 붙어있었다.

그녀는 밭일할 때 항상 작은아들 장얼량을 데리고 다녔다. 작은아들은 두 돌이 넘었는데 영양상태가 좋지 못해 아직 잘 걷지 못하고 기어다녔다. 썬잉은 애가 여기저기 기어다닐까 봐 땅에 얇은 구덩이를 파고 작은아들을 구덩이에 넣었다. 그리고 애가 울어도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울다 지치면 결국 울음을 그쳤다. 그런데 작은아들은 항상 울음 끝이 길었다. 이럴 때마다 그녀는 눈물을 꼭 참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애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 그러고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계속 김을 매고 비료를 주며 농작물을 가꾸었다.

스경성이 보다 못해 일하던 공구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뚝 해! 뚝 안 해? 짜증 나 죽겠다!”

험상궂게 생긴 스경성이 웃통을 벗고 일하다 보니 온몸의 땀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이 모습에 놀란 썬잉은 일하다 말고 작은아들을 달래러 갔다. 작은아들은 성격이 난폭해서 엄마가 오자, 늦게 왔다고 발길질하며 투정을 부렸

다. 그리고는 엄마의 젓꼭지를 쥐고 먹지도 않고 마구 잡아당기며 난리가 아니었다. 작은아들이 젓꼭지를 고무줄 놀이듯이 잡아당기니 쑤잉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하지만 엉덩이를 차마 때리지 못하고 젓꼭지를 잡아당기지 못하게 애 손을 꼭 잡았다.

이때 스경성이 또 큰 소리로 말했다. “계속 울어봐. 몸에 달린 고추를 잘라버릴 테니.” 그러면서 칼로 자르는 시늉을 했다. 이에 장얼량은 눈을 깜박이더니 쑤잉의 품으로 기어들어 실룩거리며 울음을 멈췄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스경성은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밭일을 계속했다. 쑤잉은 피곤한 몸으로 난리 치는 애를 겨우 달래 젖을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는 버드나무에 기대어 애를 토닥토닥하며 재웠다. 그리고 나니 쑤잉도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그늘진 나무 아래서 꿀벌이 들꽃 주변을 날아다니며 웅웅 소리를 내는데도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쑤잉은 좋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자기도 여전히 아버지의 귀여운 딸이었다. 주말에 그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잤다. 햇살 가득한 침대에서 그녀는 기지개하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거슴츠레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뒹굴며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좁쌀죽과 달걀 전을 다해놓고 딸 방의 창문을 두드렸다. “딸, 밥 먹자!” 그녀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어여쁜 공주였다.

쑤잉은 자신의 우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그저 놀란 느낌뿐이었다. 조금 전만 해도 살아 숨 쉬던 사람이, 매일 가족을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슬픔보다 놀라움이 더 컸고 그 당시 어머니와의 이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쑤잉이 긴 세월의 고난을 겪고 여전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지금에 와서 비로소 어머니와의 이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느꼈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가 “딸”하고 부르는 이 한마디에 그녀의 눈물은 제방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잠에서 깨어난 쑤잉은 버드나무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외쳤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다 울고 나서 쑤잉은 고개를 젓혀 눈물을 닦고 밭으로 향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의 공기는 열기로 가득 찼다. 스경성이 허리를 숙이고 팽이를 휘

두르는 모습이 마치 강 위의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는 뱃사공과도 같았다. 그는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쉰이의 발을 성큼성큼 오가며 김도 매고 거름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손질한 농작물이 푸른 빛을 띠며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밭일을 끝낸 그는 이마의 땀을 건어내고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우즈주와 달리 스경성의 담배 피우는 모습은 남자다웠다. 그는 담배를 든 손으로 턱을 받치고 ‘썩’ 하며 담배를 깊게 들이빨았다가 거칠게 내뿔었는데, 순간 앞이 담배 연기로 뿌옇게 되었다. 다 피운 후 스경성은 남은 비료 반포를 한쪽 어깨에 지고, 다른 한 손은 진흙 놀이 하던 장얼량을 잡으며 쉰이에게 말을 걸었다. “뭐해? 일 끝났으면 집에 가자. 밥 안 줄 거야?”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스경성은 어쩔 바를 몰라 커다란 손을 흔들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울긴 왜 울어? 뭐라 안 했잖아.” 그의 바보같은 모습에 쉰이는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스경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자는 왜 울다가 웃다가 하는지 말이다. 하지만 그는 쉰이가 해준 밥을 정말 편하게 잘 먹었다. 스경성이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쉰이는 그의 요구대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면을 만들고 삶은 다음, 찬물에 헹궜다. 그리고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푹푹 넣고 마지막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고추기름을 부어 매콤하고 고소한 칼국수를 만들었다. 스경성은 맥주를 마시면서 한꺼번에 세 그릇이나 먹었고 거기다가 피단(皮蛋: 중국식 숙성 오리알)도 스무 개나 먹어 치웠다. 그렇게 스경성은 온몸에 땀이 흠뻑 날 정도로 많이 먹었다. 배불리 먹고 나니 식탁에는 빈 그릇이 수도룩 쌓였다. 그는 불룩해진 배를 만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제야 그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쉰이를 향해 눈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봐 무서워?”

이에 쉰이는 대답했다. “뭐가 무서워?” 달린 입이니 마음대로 떠들어도 어쩔 수가 없다. 무서운 것보다 사는 게 먼저니까.

“좋아. 힘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대신 밥만 주면 돼.”

쉰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거친 사내의 내면에도 섬세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스경성은 또 말했다. “떠도는 소문 같은 거 듣지 마. 무슨 내가 길가는 여자한테 집적대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그거 다 사실 아니야.”

해명하기 귀찮은 듯 그는 얘기하다 말고 그녀에게 물었다. “날 믿는 거지?”

쑤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믿었다. 오전에 애한테 젖을 먹이려는데 애가 울며불며 발버둥 쳐서 스경성이 혼냈을 때도 그는 몸을 돌려 그녀의 가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때 쑤잉은 느꼈다. 스경성이 비록 험상궂게 생겼지만, 매점에 와서 카드 치며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에 비해 그는 당당한 사나이였다.

스경성은 옷을 입고 나가다더니 다시 돌아서서 말했다. “누가 괴롭히면 말해. 감옥 한 번 더 가는 게 대수야.”

쑤잉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3

우즈주는 드디어 리 씨를 잡았다.

장장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리 씨도 이젠 많이 늙었다. 그는 우즈주를 보더니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웃으며 담배를 건넸다. “어이, 잘 지냈나?”

이 말에 우즈주는 속으로 열불이 났다. 정말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그의 얼굴에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왜소한 그가 리 씨를 어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에 우즈주는 참다못해 평평 울고 말았다. 그는 이 몇 년 동안의 억울한 삶과 리 씨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억장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리 씨는 울고 있는 우즈주가 마음에 걸렸는지 잔돈을 한 움큼 건네주며 말했다. “울긴 왜 울어? 그 여자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거 같아?” 리 씨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이 몇 년 동안, 그 여자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근데 잘 살지는 못했어. 돈도 얼마 못 벌었고. 몸까지 망가졌어.”

도망 다니는 동안, 리 씨는 혼자 힘으로는 공연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작은 봉고차 한 대를 사서, 외진 산골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 주었다. 그리고는 저렴한 약품으로 현상해서 액자에 넣어 한 장에 몇 십 위안을 받고 팔았다. 당시 산골 마을에 사진관이 적어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다 보니 산골 마을 사람들은 가족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드는 것을 매우 중

요시했다. 그래서 이동하는 ‘사진관’이 인기가 많았고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대박 났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항상 한밤중에 출발해야 했고 가는 길도 멀고 험해서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아니었다. 둘은 어차피 먹여 살려야 할 식구도 없으니 먼 시골 마을까지 고생하며 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내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속 편하게 찾아오는 손님만 받았다. 자유를 얻은 여자는 돈을 물 쓰듯 했고, 둘은 한동안 마음껏 즐겼다. 그런데 쓰는 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자, 리 씨는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시내에 두고 외진 산골 마을로 내려가 돈을 벌어야만 했다. 거기서 리 씨는 사진뿐만 아니라 불량 상품으로 나온 세제, 옷, 가전제품도 가져다 팔았다. 그렇게 돈을 벌어오면 여자는 환한 웃음을 보이며 한동안 즐겁게 지냈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투덜거렸다. 그러다 한번, 리 씨가 불량 상품을 팔다가 마을 사람한테 들켰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해서 호되게 맞아 앞니가 반쯤 깨져나갔다. 다친 입을 가리며 도망가던 리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연녀를 두는 게 아니었구나.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모셔야 하는 거였구나. 돈을 버는 대로 다 가져가니 이걸 흠혈귀나 다름없는 것이구나.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따뜻한 밥은커녕 차 한잔도 얻어먹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리 씨가 낮에 돈 벌러 나가면 여자가 광둥(廣東)에서 야생 고기를 사러 온 사장과 붙어있는 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에 리 씨는 손을 툭툭 털며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여자의 이런 경박함이 좋아서 꼬셨는데, 이제 와서 가장 미운 것도 그 여자의 경박한 행동이었다. 다 자초한 것이니 누굴 탓하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여자의 말과 행동에 리 씨도 무덤덤해졌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도 났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리 씨가 몰고 가던 차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더니 고장 나서 멈춰버렸다. 주변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리 씨는 차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거센 산바람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들을 보며 사색에 잠겼다.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한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이 모든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그런 생각이 들자, 리 씨는 애써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돈이 없으니 둘 사이의 웃음과 즐거움은 온 데 간 데 사라졌고 날카로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리 씨는 느꼈다. 서로의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는 왜 콩깍지가 씌였을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때 도망가자고 제안한 건 네 마누라였어.” 리 씨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제 날 버리고 갔어. 광등에서 온 야생 고기 파는 놈이랑. 그런 여자 때문에 왜 울어? 그럴 가치도 없는 여자야.”

만약 리 씨말이 사실이라면 평생 현(縣)조차도 가보지 못한 우즈주가 어떻게 머나먼 광등까지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큰 도시는 우즈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제 아내의 소식이 완전히 끊긴 셈이다. 또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그는 아내와 같이 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었다. 그 여자가 없어도 긴 세월을 버텨왔으니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아내를 찾지 못하면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혼을 못 하면 재혼도 안 되니까. 이에 우즈주는 화도 나고 막막하기도 해서 그만 땅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며 외쳤다. “내 마누라 내놔, 내놔!”

리 씨는 어이없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착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공연을 다시 해볼까 해. 예전에 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나랑 같이하자. 돈 벌어서 장가가면 되잖아.”

“장가는 개뿔!” 우즈주는 욕을 내뱉으며 나가려는데, 옆에 있던 리 씨 어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밥 먹고 가라고 우즈주를 잡았다.

밥상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쳤다. 리 씨는 어리둥절해 눈을 깜빡이며 변명하려고 들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다시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런 여자 때문에 몇 년을 떠돌아다녀? 이 엄마도 버리고 말이야. 네가 알기나 해? 내가 심장병 도질 때마다 다 즈주가 병원에 데리고 갔어. 애가 없었으면, 이 엄마는 벌써 죽었어. 근데 네가 그런 몫쓸 짓을 하다니!”

리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어머니의 말에 우즈주는 연신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그만 하세요.”

어머니는 아들한테 우즈주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 리 씨는 비록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두려워서 고분고분 술을 부었다. 그러고는 술잔을 툭 하고 우즈주 앞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니는 또 우즈주를 위로했다. “애야, 마셔라. 정말

미안하다. 이런 못난 놈을 낳아서 말이야. 내가 좀 알아봤거든.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던데. 같은 마을에 있는 남편 일찍 잃은 여자 맞지? 네 어머니가 안 계시니, 내가 대신 가서 혼담을 꺼내 보마.”

우즈주의 눈가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렇게 현명한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속 없는 아들을 낳았을까? 리 씨 어머니는 말하는 내내 썩음을 ‘과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우즈주와 썩음의 관계를 자기 아들과 같은 내연관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리 씨 어머니의 정중한 말씀에 그들의 관계가 정정당당하게 보였다. 우즈주는 술을 마시고 나서 울먹이며 외쳤다. “어머님!”

4

장열량은 5살 때 죽을 뻔했다. 그 당시, 1987년 전후로 태어난 애들 중 많은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렸다. 썩음네 마을은 더 심했다.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를 저는 애가 예닐곱이나 있었다. 사실 향(鄉) 보건소에서 ‘사탕 알약’이라는 소아마비 백신을 마을 의사에게 각 가정에 나눠주라고 보내줬는데 마을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마을 의사는 변명했다. “저희도 하루 종일 바빠요. 집마다 다닐 수 없으니까 진찰 보러 온 사람한테 대신 받아 가라고 했죠. 그런데 대신 받아 간 사람이 잊어먹고 전달 못 한 걸 우리에게 따지면 어떡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마을 의사의 가까운 이웃들은 모두 백신 약을 받았고 소아마비에 걸린 애가 한 명도 없었다. 백신을 못 받은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시골 의사한테 치료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기에 그를 호되게 때리고는 스스로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그러고는 “특효약”이 있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 받았다. 그 당시에 말하는 “특효약”으로는 민간요법이나 전기 치료법 그리고 한약 등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이 없었기에 이런 민간 치료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좋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도 많았고, 운 좋게 다 나았더라도 크고 작은 후유증이 뒤따랐다. 그런데 장열량이 절뚝거리지 않은 이유는 학교에 다녔던 썩음이 민간 치료법이 효과 없다는 것을 알고 계속 현에 있는

큰 병원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치료해 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장얼량은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나고 토하며 장염 증상을 보였고, 링거도 수혈도 다 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지칠 대로 지친 쑤잉은 아들을 걱정하는 한편, 치료비도 걱정됐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운이 좋았다고 할까? 마침 성(省) 병원에서 소아마비 치료에 경험이 풍부한 나이 지긋한 의사가 봉사하러 현에 잠깐 내려왔다. 이 소식을 듣고 쑤잉은 그를 찾아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성 병원의 진료과 이름을 알려 주면서 거기로 가보라고 제안했다. 그제야 쑤잉은 아들을 낫게 할 희망을 보았다. 책임감이 강한 의사는 떠나기 전에 병실에 있는 장얼량을 직접 찾아와서 증상을 확인하고 그의 다리를 여러 번 굽혔다 폈다 하며 진찰해 봤다. 진찰 과정에서 쑤잉은 의사의 미간이 찌푸렸다 폈다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졸였다. “서두르셔야 해요. 더 늦으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는 당부했다.

쑤잉은 어떻게 감사를 표할지 몰라 또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의사는 그러지 말라고 그녀를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기 병원의 주치의가 내 제자입니다. 내가 말해 놓겠습니다. 무료가 가능한 부분은 무료로 해드릴 테니, 빨리 데려가 보세요.”

쑤잉을 아들을 업고 친정 식구며 지인이며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를 다 돌아다녔다. 그리고 빌린 돈으로 먼저 아들을 입원시키고 간병인을 찾아 놓은 후 다시 돈을 구하러 다녔다.

우즈주는 딸이 있어서 쑤잉을 많이 도와줄 수 없었다. 성격이 되바라진 딸 우화화(吳花花)는 아버지가 쑤잉 집을 드나드는 것을 싫어했고 그녀한테 심한 말을 내뱉었다. “아줌마, 앞으로 우리 아빠한테 꼬리치지 마세요. 알았죠?” 이에 쑤잉은 수모당한 느낌이 들어 변명하고 싶었지만, 우화화의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져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엄마도 없는데 이제 아빠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쑤잉은 하이싱 무덤 앞에 달려가서 통곡했다.

그날 저녁, 스경성이 찾아왔다. “애가 커서 째룩거리면, 엄마를 평생 원망할 거야.” 그러면서 또 말했다. “끝까지 치료해 봐.”

스경성은 쑤잉이 돈을 못 갚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집에서 키운 돼지랑 소 그리고 양들을 다 팔아서 그녀 아들의 치료비로 보태줬다. 이렇게 쑤잉 아들은

한 달 동안 입원하고, 또 반년 동안의 후속 치료를 거쳐 거의 다 나았다. 가끔 급하게 달릴 때 약간 절룩거리는 것 빼고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절름발이”로 만들었다고 원망했다.

여자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과 따뜻한 마음이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감동을 한 쑤잉은 스경성에게 시집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는 경솔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았지만, 건장한 체격으로 쑤잉네를 지킬 수 있고 또 그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점이 너무 다행이었기 때문이었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쑤잉은 오리탕을 한 솥 끓여놓고 두 아들에게 오리 다리를 하나씩 먹이고는 일찌감치 재웠다. 얼마 후, 스경성이 술 한 병을 가지고 들어 왔다. 둘은 난로 옆에 마주 앉았다. 난로의 뜨거운 열기에 스경성의 얼굴은 별경게 달아올랐다. 그는 고기를 한입 넣고 술 한잔을 먹을 때마다 쑤잉을 한번 쳐다봤다. 술을 한잔 먹은 스경성의 눈빛은 등잔 속의 심지처럼 촉촉하면서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는 눈빛도 달라졌다. 그는 헤헤 웃으며 계속 게걸스럽게 음식을 목구멍으로 삼켰다. 드디어 술이 거나해지자 스경성은 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 나갔다. 그는 휘날리는 눈꽃을 보며 가슴을 젖히고 말했다. “정말 큰 눈이네!” 그러면서 바닥에 앉아 술을 계속 마시더니 쑤잉에게 같이 마시자고 권했다.

쑤잉도 술을 한잔 마시고 마음을 열었다. 그 순간 누가 먼저 손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눈빛도, 마음도 황홀해지면서 부둥켜안았다. 스경성은 쑤잉을 급하게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물고기 비늘을 벗기듯 그녀의 옷을 한 겹 한겹 벗겼다. 그러자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가 드러났다. 그는 쑤잉의 부드러운 피부에 잠시 취해 있다가 아랫배 쪽을 쳐다보았다. 순간, 스경성은 그녀의 제왕절개 흉터에 흠칫 놀랐다. 그 흉터가 “V” 모양으로 되어 마치 붉은 지렁이 두 마리가 붙어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이 흉터는 쑤잉이 둘째를 낳을 때 남긴 것이다. 애 머리가 커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현에 있는 병원의 수술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 의사가 애를 빨리 꺼내기 위해 수술 자국을 크게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스경성은 흉터에 놀라 흥분된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다. 이에 그는 쑤잉의 내복을 아래로 잡아당겨 흥

터를 가렸다. 그리고는 시선을 아랫도리로 내리더니 또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기 전에 스경성은 내의에 가려진 그녀의 흉터를 만지면서 이상야릇하게 웃었다. “하나 더 낳을 수 있어?”

사실 그의 모든 반응을 쑤잉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하고 참았다. 그런데 스경성의 이 말에 그녀의 마음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식어버렸다. 쑤잉은 몸에 올라온 스경성을 힘껏 밀어 내리며 말했다. “내가 정말 눈이 빠졌어. 당장 나가!” 그러면서 그녀는 별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이불을 껴안았다. 하지만 이불로 그 하얀 몸뚱어리를 전부 가릴 수가 없었다. 쑤잉의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쑤잉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날 좋아한 건 진심일 거야. 그런데 아이 욕심이 생긴 것도 진심이겠지. 우리 모두 사람인데,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그런 욕심이 드러나는 건 아무도 잘못이 없어. 그렇지만 결과는 이처럼 잔인하구나.

스경성은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고 다시 그녀를 껴안고 달래봤지만, 쑤잉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경성은 안고 달래고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녀는 꺼져버린 불더미처럼 좀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스경성은 자기 뺨을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잘 먹고, 잘했으면 되는걸. 입방정을 떨어져 말이야!”

그의 노골적인 솔직함에 쑤잉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눈을 감고 몸에 덮었던 이불을 걷어내고 누웠다. 그것은 스경성과 함께 있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쑤잉은 입을 열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시술을 해버렸어. 더는 낳지 못할 거야. 미안해.”

이때 맞은편 눈밭에서 우즈주가 쭈그리고 앉아, 스경성이 그녀의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우즈주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 짐작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으니 후련한 느낌도 들었다. 이 연놈들이 눈 오는 밤에 서로 껴안고 불타오르고 나만 홀로 쓸쓸하게 남겨두었네. 여기까지 생각한 우즈주는 뚝 하고 침을 뱉고는 가버렸다.

바로 뒤에 하이싱의 본가 형제들이 낫과 팽이를 들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간통을 잡겠다고 쑤잉네 집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쑤잉이 있는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술에 취해 쿵쿨 자고 있는 스경성을 이불 속에서 끌어냈다. 그리고는 밧줄로 꼬꽂 묶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눈 내리는 밤, 벌거벗은 스경성은 하얀 입김을 연신 내뿜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너무 심하게 떨다 보니 그의 아랫도리도 같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보다 못한 본가 형제들이 깡이를 휘둘러 그의 아랫도리를 내리쳤다. 이에 스경성은 비명을 지르더니 마치 괴력이 생긴 듯 몸에 묶인 밧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아랫도리를 가랑이에 끼고 옆에 세워진 몽둥이를 손에 넣으면서 미친 듯이 고향치며 그들을 향해 쾅쾅쾅 뛰어갔다.

두 아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눈을 비비적거리며 마당을 내다봤는데 벌거벗은 스경성과 옷이 풀어 헤쳐진 엄마가 보였다. 이 광경에 놀란 큰아들 장쯔젠(張自建)은 동생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장난기 심한 동생은 이 많은 사람을 보더니 장난기가 발동해 마당으로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렇게 큰아들은 못 나가게 끌어당기고 작은아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당에 서 있던 쑤잉은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처음에는 너무 놀라 멍해 있었다. 정신이 들고 나서 그녀는 이런 처참한 자신을 보고, 또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들이 보더니 이내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다.

두 남자가, 그녀를 사랑한다던 두 남자가, 눈바람 부는 겨울에 쑤잉의 마음을 꼬꽂 열어 붙였다. 그 후, 쑤잉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이십 년 동안, 더 이상 남자를 믿지 않았다.

5

쑤잉은 여름에 밭일 갈 때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그것은 이 시간대에 마을 사람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니, 그들이 수군거리는 말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밭에 가면 끝없는 푸른 평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여물어 가는 보리싹, 만개한 목화꽃, 알이 팍 찬 옥수수, 이 모든 게 가지런하고 늘어져 있다. 바람이 불면 가장 변두리에 있는 푸른 농작물이 잔잔한 물결처럼 일

렁이더니 바람에 따라 점점 넓게 퍼져나갔다. 이때가 바로 평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푸른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였다.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맑아졌다. 쑤잉은 이런 ‘푸른 바다’에서 밭일하는데, 풍겨오는 자연의 흙냄새와 보리싹 향기가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고 너무나도 자유로웠다. 그것은 이 순간, 그녀가 하이싱의 아내, 두 아들의 엄마, 그리고 디완(堤灣) 마을의 경박하다고 소문난 과부가 아닌,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울부짖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애들이 커가면서 돈도 많이 들기 시작했다. 논밭과 매점에서 번 돈으로는 두 아들을 키우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겨울밤, 스경성과의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녀는 매점을 열 자신이 없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쑤잉은 온 마을 여자들이 견제하는 적이 돼버렸다.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그녀의 매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웃 마을에 사는 황(黃) 씨는 쑤잉이 스경성같은 남자라도 간통할 수 있으니, 자신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주 매점에 찾아왔다. 그는 물건을 사고 나서 바로 가지 않고 매대에 기대어 그녀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쑤잉은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니 쫓아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말하라고 내버려두었다. 그런데 며칠 뒤, 누가 쑤잉이 기르던 어미 양의 뒷다리를 부러뜨렸다. 이에 둘째 아들은 탐정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더니 황 씨 마누라가 양을 때리는 것을 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몸집이 뚱뚱한 황 씨 마누라는 쑤잉네 어미 양이 자기 집 산초잎을 뜯어 먹었다고 하면서 회화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양의 뒷다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고 했다. 그러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어미 양은 쓰러지면서 빨간 잎사귀를 뱉어냈다. 그리고는 애절한 소리를 내며 한참을 몸부림치더니 겨우 일어나 절뚝거리며 집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어미 양은 쑤잉의 아버지가 남겨 준 것이다. 아버지는 늘그막에 양들을 길렀다. 그중에 성격이 가장 온순하고 새끼를 많이 낳는 어미 양이 있었는데, 낳은 새끼도 어미 양의 우수한 유전자를 이어받았다. 아버지는 이런 새끼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새끼 양을 골라 딸에게 주면서 새끼 양이 많은 새끼를 낳아 딸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다.

아버지가 풍이 와서 반신불수가 된 후 아들들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양들을

팔아버렸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링거를 맡고 있던 아버지는 양을 판 돈을 치료에 쓰지 않고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에 자식들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아버지께 치료받으라고 애원했다. 이런 애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아버지는 링거를 뽑아버리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자식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양 떼를 키울 때 지냈던 강가의 오두막집으로 갔다. 그러고는 자식들이 찾아와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자식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아버지는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없이 힘겹게 녁 달을 버텼다. 그러다가 돌아가기 전날, 아버지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다. 그는 일어나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면도도 했다. 그러고는 수의로 갈아입고서 문 앞에 준비해 놓은 관속에 들어가서 반듯하게 누웠다. 아버지는 만면에 흡족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식에게 퐁오움을 받아내라고 한 적이 없었다. 어떤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았다. 연속극에서 보던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의 병시중으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 생기게 만들지 않았다.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마을 사람들, 특히 병으로 자식에게 누가 되고, 또 며느리의 월망 거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탄했다. “푸 씨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버지의 발인식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세 며느리도 이 순간만큼은 똑같은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런데 썩임과 썩임 언니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별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들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떠난 것은 자식들이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그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다.

양을 팔고 나서 자식에게 돈을 나눠 줄 때, 아버지는 막내딸에게만 두 사람 몫을 주었다. 그리고 양도 한 마리 더 주었다. 썩임이 돌이켜보니, 거기에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지 못한 아버지의 미안함이 들어있었다. 또한 막내딸이 자식 중에서 가장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딸이 힘겨운 삶을 선택한 것에 실망이 큰 만큼 아픔도

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쑤잉은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어미 양을 품에 안았다. 이렇게 쑤잉은 어미 양을 가족처럼 여기며 항상 싱싱한 풀만 먹이고 정성껏 돌봐왔다. 그녀에 대한 보답인지 어미 양도 처음 새끼를 낳을 때 네 마리나 낳아 주었다. 이대로 번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양 부자가 될 것이고 집안 살림이 넉넉해질 것이다. 쑤잉은 조금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희망이 오히려 사람을 절망에 빠트릴 때도 있다. 쑤잉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한번 겪었는데, 이번에도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날, 쑤잉이 밀가루를 만들러 가야 해서 작은아들에게 양들이 먹을 풀을 베어오라고 시켰다. 작은아들은 “네네.”하고 대답은 했지만,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며 풀을 베기는 싫었다. 그래서 어미 양과 새끼 양을 모두 들에 풀어놓고는 친구들과 강가에서 물놀이했다.

집에 돌아온 쑤잉은 어미 양이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는 품에 안고 숨이 넘어갈 듯 통곡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미처 나오지 못했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쑤잉은 어미 양을 때린 여자를 찾아가서 따질 용기가 없었다. 비록 어미 양을 때린 이유가 너무 황당했고, 이 온순한 어미 양이 어떻게 온통 가시인 초산 잎을 먹었는지 궁금했지만 말이다. 그 여자는 또 큰 소리로 떠벌렸다. “이번은 흠쳐 먹은 양 새끼를 팠지만, 다음번에는 내걸 건드리면 그년을 가만 안 둘 거야!”

쑤잉은 양을 품속에 안았다. 심한 통증으로 어미 양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면서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또 자기의 배를 쳐다보았다. 순간 쑤잉은 마음이 먹먹해졌다. 또 새끼를 가졌구나. 그녀는 어미 양의 목을 꼭 껴안고 다친 다리를 조심스레 만져 보았다. 어미 양이 느낀 아픔을 쑤잉도 느끼고 있었다. 이 순간 그들은 모두 가슴이 찢어진 어머니였다. 서로 같은 마음일 거라는 것을 생각하니, 쑤잉도 어미 양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둥둥 떠 있었다.

이틀도 안 돼서 어미 양의 부러진 다리가 굼아 올랐다. 어미 양은 숨을 거둘 것만 같았다. 누가 쑤잉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죽여서 고기나 먹어버려.”

쑤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의사를 찾아가서 어미 양의 다친 다리를 절단했다. 그리고 수액도 하고 십여 일 동안 치료하면서 치료비로 백 위안 넘게 썼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감염되었다. 심한 통증으로 어미 양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결국 아픔을 견디지 못해 숨을 거두었다. 이에 사람들은 양 한 마리 가격이 백 위안도 안 되는데, 이제는 너무 야위어서 고기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고 쑤잉을 조롱했다. 하지만 쑤잉은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리밭에 가서 큰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는 낡은 옷을 이어 붙인 흰 천으로 죽은 어미 양을 감쌌다. 이렇게 어미 양을 위해 쑤잉은 엄숙히 장례를 치렀다.

쑤잉은 뜬 눈으로 죽어버린 어미 양의 두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는 하이싱의 묘 옆에다 파놓은 구덩이에 양을 넣었다. 그녀는 흙으로 천천히 어미 양을 덮었다. 끝나고 쑤잉은 어미 양에게 동그랗게 올라온 분묘를 만들어 주었다. 분묘 앞에다 ‘판샤오과이(樊小乖)의 묘’라고 적어 놓은 작은 널빤지를 세워 놓았다. 이 과정을 마을 사람들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웃었다. “참 신기하네. 쑤잉은 역시 남달라. 양 새끼한테도 묘비를 만들어 주네.”

구경하러 온 사람들 속에는 우즈주도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몸을 옆으로 기울인 채 노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어미 양은 그 어떤 성 씨도 아닌 판 씨였고 쑤잉이 가슴으로 낳은 이쁜 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6

쑤잉은 매점 문을 닫았다.

그녀에겐 손님 외상을 적어 놓은 노트가 있다. 그 속에는 이 몇 년 동안 누가 무엇을 사고 얼마를 외상으로 했는지 상세히 적혀있었다. 자세히 계산해 보니 몇백 위안이나 되었다. 매점 문을 닫기 전, 쑤잉은 이 외상 노트를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다. 타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며 쑤잉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끝까지

지 그들은 나한테 빛을 진 거야. 이 마을 사람에게 내가 진 빛은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썬이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 누가 인생을 계산하며 살 수 있을까? 물러설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정말 수없이 고민해야만 했다. 썬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녀는 다시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다. 썬이는 목화와 옥수수를 팔아버리고 또 언니한테서 빌려 온 돈으로 큰 자전거를 한 대와 향 제조기를 사들였다. 그리고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쳤다. “느릅나무 껍질을 삽니다. 느릅나무 껍질요.” 그녀가 이렇게 느릅나무 껍질을 사들이는 이유는 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느릅나무는 질기고 찰져서 솔방울 껍질과 섞어 뺀 다음, 기타 분말 가루를 첨가하면 향을 만들 수 있었다.

신자들은 신상 앞에서 소원을 빌 때면, 손에 든 향을 통해 신에게 소원을 전하기 마련이다.

망산(莽山) 중턱에는 할망신을 모시는 절이 하나 있었다. 이 절에서 자식을 빌든, 인연을 빌든, 성공을 빌든 모두 신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원을 빌러 온 사람들이 늘 북적였다. 썬이는 잘 말려서 만든 향들을 굵기에 따라 잘 묶어 놓고 오가는 사람들이 편히 골라 살 수 있도록 해놓았다. 특히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향을 태우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수입이 괜찮았다.

이런 작은 별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건 할망절에 있는 나이 든 비구니가 썬이를 불쌍히 여겨 알려 준 덕분이었다. 절을 처음 찾아갔을 때 썬이는 담벼락을 따라 절의 앞쪽에서 뒤쪽까지, 또 미륵보살에서 위타천까지 한 바퀴 돌았다. 그녀는 절을 둘러싼 난간도 만져 보고 보살도 멍하니 쳐다보았다. 하지만 향도 태우지 않았고 절도 하지 않았다. 썬이는 그렇게 하염없이 절 주변을 걸어 다녔다. 한참을 돌고 나서 썬이는 뒷산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칼로 깎아 내린 듯한 절벽이었다. 절벽 아래로는 스산한 기운이 도는 깊은 호수가 있었다. 어두침침한 호수는 내려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썬이는 그렇게 폭이 겨우 한발을 간신히 디딜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산길을 따라 배회했다. 황혼녘이 되자 저녁 노을빛이 절벽 아래의 호수를 비추었다. 그러자 깊고 어두웠던 물빛에 주홍빛이 퍼져나갔고 그 모습이 꿈결 같았다. 그리고 절벽 아래에서 부는 바람

이 호수를 살랑살랑 일렁이면서 연붉은빛 수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마치 달빛 아래에서 보는 드넓은 바다와도 같았다. 따뜻한 노을을 쬐며 호수 위의 반짝이는 물결을 멍하니 쳐다보던 쑤잉은 갑자기 잔잔한 물결이 자기를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바람이 그녀의 귀가 스쳐 지나가며 나이 든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내려오너라. 높은 곳에 너무 오래 서 있었구나. 힘들지 않아?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이 소리에 쑤잉은 발꿈치를 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는 반짝이는 호수를 향해 양팔을 쭉 벌렸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기 전에 먼저 아래로 하강하려는 것과 같았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 순간 어머니와의 이별, 남편의 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 어미 양의 처참한 죽음, 두 자식을 키우는 고달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고통, 이 모든 아픔이 흩날리는 머리카락처럼 마음속에서 날아 가버렸다. 쑤잉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뛰어내리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거칠고 마른 손이 그녀의 허리를 딱 껴안았다. 그 사람은 쑤잉을 구하려고 뒤로 힘껏 끌어당겼다. 하지만 쑤잉은 이 고달픈 인생의 막을 내리고 싶어 절벽으로 몸을 당겼다. 이렇게 둘은 한참 동안 실랑이하면서 온 힘을 다 썼다. 이 과정에서 쑤잉이 물고 할퀴기까지 했지만, 그 사람은 좀처럼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노을이 지고 호수 위에 반짝이던 빛도 사라졌다. 다시 한기가 느껴지는 깊고 어두운 물빛이 보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쑤잉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꿈에서 깨어난 듯 뒷걸음질했다. 이때 뒤에 있던 사람은 그녀를 뒤로 확 끌어당겼고 둘은 땅에 벌러덩 넘어져 숨을 헐떡거렸다. 쑤잉은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고 내설 때마다 울면서 한스러움을 드러냈다.

나이 든 비구니는 쑤잉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다 지어가는 노을빛이 비구니의 머리 위를 비추었는데 막 자라난 흰 머리카락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다. 쑤잉이 울음을 그치자, 비구니가 입을 열었다. “아미타불.” 마음이 평온해진 쑤잉은 무릎을 꿇고 비구니에게 절을 했다. 비구니는 그녀를 일으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처음에 쑤잉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구니가 여러 번 물어보자,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제방이 터진 듯 그간의 괴로움을 밤이 깊어질 때까지 쏟아내었다.

쑤잉의 얘기를 듣고 비구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비구니는 썩음을 일부러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비구니는 할망절에서 가장 오래된 스님이었다. 나이 든 주지가 입적한 후, 비구니는 정부의 종교부서에서 자신을 새 주지로 임명할 줄 알았다. 하지만 비구니의 생각과 달리 종교부서에서는 대사찰에 있었던 젊은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 새로 온 젊은 주지는 매우 기세등등했다. 그는 시춧돈이나 일상 지출, 그리고 절의 재건 계획 등을 비구니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사실 할망절은 주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거나 좋은 혼처를 찾게 해달라고 비는 절이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청나라 말에 그려진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주는 그림이 할망절의 벽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절할 때 쓰는 방석을 몇 달에 한 번씩 새것으로 교체해야 할 만큼 소원을 빌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 온 주지는 할망절을 대사찰의 대웅전과 똑같이 만들기로 했다. 그는 대사찰의 규격에 따라 본당 중앙에 석가모니 신상을 모시고 양옆에는 석가모니를 호위하는 십팔나한과 삼대 보살인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의 신상을 두었다. 그리고 원래 본당에 있던 할망 신상은 편전으로 옮겨버렸다. 이에 대해 비구니가 몇 마디 하려고 입을 열려는데 새 주지의 말에 비구니는 하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글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아요! 할망 신상만 안고 있으면 돈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 재건을 해줘야 나라에서 돈도 주고 그러죠.” 이렇게 주지는 나름대로 커다란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비구니는 이에 탄식만 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비구니는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다가 비구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썩음을 구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썩임은 얼굴도 모르는 그 기세등등한 새 주지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썩임이 모든 걸 쏟아낸 후 비구니는 그녀에게 향을 만들어 파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하지만 썩임은 비구니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못 하고 급히 산에서 내려갔다.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아직 저녁을 못 먹었다는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절에 오는 신자들 대부분이 시골 사람이었기에 싸면서 질은 좋은 썩임의 향이 인기가 좋았다. 거기다가 더욱 기쁜 일이 생겼다. 절의 상황이 바뀌어 썩임의 향이 더 잘 팔렸다. 2년도 안 돼서 새 주지는 할망절을 떠나 원하던 대로 현 정부의 중요한 부서에 들어갔다. 그 주지가 이처럼 작은 절을 멋대로 개조하는

바람에 할망절은 이도 저도 아닌 절이 되었고 종교부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이 든 비구니를 대리 주지로 임명했다. 이렇게 대리 주지가 된 비구니는 할망절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 후 할망절은 다시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다. 이에 썬잉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구니는 썬잉을 돕기 위해 소원을 빌러 온 사람에게 귀뜸했다. “산 입구에서 향을 파는 시주님이 할망 신상 앞에서 소원을 빌었더니 아들을 돌이나 낳았어요.” 비구니가 말을 좀 과장되게 했지만, 그래도 사실에 근접하게 말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러 온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모두가 비구니의 말을 듣고 썬잉에게 향을 사러 왔다. 그러면서 소원을 비는 비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할망 신상 앞에서 빌 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빌었기에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썬잉은 사람들의 질문이 좀 어이가 없었지만, 향을 많이 팔기 위해 어떻게 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사실 이러한 말은 썬잉이 비구니한테서 배운 것들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건하게 빌어야 한다는 등이었다. 그리고 절에는 소원을 빌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었다. 할망신께 빌어 아들을 얻은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할망절을 찾아온다. 그러면서 공덕 상자를 두둑이 채워놓는다. 그러다 보니 썬잉의 향과 구슬께미, 염주 등도 덩달아 잘 팔리게 되었다. 썬잉은 사리 밝은 사람이다. 그녀는 번 돈의 일부를 항상 두어 달 간격으로 절에 헌납했다. 그리고 천을 사서 비구니에게 철마다 승복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 거기다가 같은 여자로서 신경 써 줄 수 있는 양말과 내의 같은 사사로운 것들도 비구니에게 챙겨주었다.

비구니의 보살핌 밑에서 썬잉은 마음 편히 장사를 이어갔다.

가끔 비구니에게 물건을 갖다주러 절에 들어갔다가 썬잉도 할망신에게 절을 하는 기분이 생겼다. 예전에 그녀는 할망절에 들어왔어도 절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향을 태우며 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망신이 너무 바쁠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했다고 해도 할망신이 공물을 바치지 못하는 자신을 돌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 비구니가 주지로 있으니 그녀는 웬지 모르게 절에 있는 할망신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절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 썬잉도 깨달은 바가 있게 되어 비구니와 얘기를 나

누었다.

중생은 모두 고독을 느끼고 고난을 겪어요. 그것은 마치 유등 속의 심지와도 같아요. 심지가 있어야 유등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중생들이 고개 숙여 진심으로 빌면 그 모든 고뇌가 돌상으로 모이게 되고, 그 돌상이 신으로 화현합니다. 중생의 욕망이 바다라면 신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예요. 신이 자비심을 갖고 모두를 제도하죠. 하지만 속세에 사는 중생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결국, 중생의 욕망이 신을 화현했어요. 마치 바다가 돛단배를 뜨게 하는 것과 같아요.

신에 대한 쑤잉의 불경스러운 생각에 비구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톡 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애도 참.” 쑤잉은 방석 위에 꿇어앉아 비구니 몸에 기대었다. 비구니는 쑤잉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 말했다. “어쩌면 네가 하늘에서 보낸, 나를 제도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7

향을 만들어 팔고 또 발농사의 수확도 있으니, 쑤잉의 수입이 드디어 지출보다 많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매우 만족했다. 많은 것을 빼앗아 간 운명이 드디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쑤잉은 생각했다.

이런 바쁜 나날이 9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해 늦봄, 어느 날 낮에 비구니는 입적하여 극락세계로 올라갔다. 당시 예불 용품을 파는 사람은 쑤잉 뿐이 아니었다. 비구니의 보살핌이 사라진 후, 그녀를 노리는 경쟁자는 깡패들을 불러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쑤잉이 팔자가 세서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면서 그녀와 연인 남자는 모두 단명할 거라고 떠들어댔다. 이렇게 품행이 올바르지 않고 악운이 도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으니, 누가 감히 그녀의 예불 용품을 사겠나? 이에 쑤잉은 손님이 톱 끊겨 장사를 접어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 별이는 비구니의 보살핌으로 9년이나 이어왔으니, 운명의 저주에서 벗어난 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고비였고 이 9년은 단지 운명이 준 유예기간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산밑에 있는 향을 저장하는 그녀의 작은 창고에 갑자기 불이 났다.

사실, 예전부터 불이 날까 봐 매일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 그날이 온 것이다. 그녀는 오히려 한시름 놓은 듯 웃음만 나왔다. 이 상황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가 커다란 바위를 정상 근처까지 밀어 올렸는데, 그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과 같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두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현에 있는 제분소, 통조림공장, 가죽공장, 공사장 등을 전전했다. 다행히도 썬잉은 이렇게 두 아들을 키웠다. 이제 큰아들 장썬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아들 장얼량은 중학교에 들어갔다. 썬잉은 더 이상 두 아들 곁에 붙어서 돌볼 필요가 없었다.

간통이라고 하던 그 겨울밤의 일이 일어난 후, 스경성은 도시의 공사장에서 일하는 친척을 찾아갔다. 그는 마을에서 떠도는 유언비어를 듣기 싫었던 것도 있었고,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스경성은 도시에서 막노동 몇 년 했다. 그러고는 돈을 주고 샀는지 아니면 어디서 꺾였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외지 여자를 데려왔다. 그 여자는 스경성과 몇 년 살더니 결국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근 10년 만에 스경성은 다시 썬잉을 찾아왔다. 그녀를 보자 스경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썬잉, 나랑 살자. 몇 년 동안 내가 돈을 좀 모았거든. 큰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해.”

이제 애들도 다 컸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다. 그러니 아무도 다른 집의 불륜 같은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썬잉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미모가 예전과 같지 않으니, 같이 살자고 하면 그녀가 동의하거나 할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스경성은 생각했다.

스경성의 말에 빨래하던 썬잉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날 이불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그럼,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았을 거야.” 말이 끝난 그녀는 입을 다물고 계속 빨래를 문질렀다.

스경성은 고개를 떨어트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말 한마디도 유효기간이 있다는걸. 그 순간을 놓치고 지금에 와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말이다. 이 여자가 더 이상 나를 마음에 두지 않는 건가? 이를 생각한 스경성은 탄식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그는 다시 썬잉에게 말을 걸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셈이야?”

“계속 이렇게 살면 되지. 힘든 세월을 다 이렇게 버텨왔잖아.” 썬잉이 대답했다.

그런데 스경성이 갑자기 분개하더니 말했다. “이게 다 우즈주 때문이야!”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날밤, 고자질한 사람이 바로 우즈주 그놈이야!”

“당신이 직접 봤어?” 썬잉이 물었다.

“그놈이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스경성의 분노는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올랐다. “그놈을 두드려 패며 물어봤어. 근데 끝까지 자기 짓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더라. 쥐새끼 같은 놈!”

사실, 간통이라고 난리를 쳤던 그해에 눈이 녹은 후 썬잉은 마당 맞은편 풀더미 앞에 담배꽂초가 잔뜩 있는 것을 발견했었다. 브랜드가 ‘두장(渡江)’인 담배였다. 그 담배를 본 순간 썬잉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우즈주는 절약하는 성격이라 항상 값싼 ‘두장’ 담배만 피웠고 담배에서 대추 향이 난다고도 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썬잉이 매점을 하고 있을 때였다. 우즈주는 매점에서 물건을 산 다음, 혹은 리 씨를 찾으러 갔다가 사탕을 사서 그녀에게 갖다준 다음, 그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고 매점에 잠깐 머무른 적이 몇 번 있었다. 협소한 공간에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 보니 좁은 공간은 숨을 쉴 때 내뿜은 따뜻한 공기로 점점 달아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래 있다 보니 썬잉은 얼굴도 뜨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녀는 물건을 뒤적거리는 척하며 허둥댔다. 그러다가 우즈주와 살짝 부딪쳤다. 그 순간, 그녀의 설레는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이에 우즈주는 코를 훌쩍이며 씩 웃었다. 그리고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며 한마디 했다. “대추 향이 참 좋네.” 그 말이 담배를 말한 건지, 사람을 말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썬잉은 우즈주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 지난 일이잖아. 얘기하면 뭐 해.” 썬잉이 말했다. “다 지난 일이야.”

“나한테는 아니야. 그놈이 보일 때마다 쥐어떨 거야!” 스경성이 말했다.

우즈주도 이 몇 년 동안 순탄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는 아내를 단속 못 했는데, 이제는 딸마저도 단속을 못 하고 있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우즈주는 리 씨가 차린 공연회사에 빌붙어 호금을 타면서 혼자서 힘들게 딸을 키웠다. 그런

데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딸은 알록달록한 머리카락에 짙은 화장까지 하고 다녔다. 그러다가 건달과 눈이 맞아서 특하면 우즈주에게 용돈 달라고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다. 우즈주는 자기가 벌이에만 신경 쓰다 보니 딸에게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딸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고 많이 애썼다. 그런데 그 결과, 아버지와 딸이 일년내내 싸우기만 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딸은 핏김에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딸이 이미 많은 건달과 잤다는 황당한 소문도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우즈주에게 딸을 데려가라고 연락이 왔다.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것 같았다. 이에 우즈주는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학교로 가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재미로 살았지? 반평생을 힘들게 살면서 겨우 키웠는데. 불효막심한 계집을 키웠네. 한평생을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한스럽게 살아왔다. 그런데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황당하구나. 하지만 어디까지나 딸은 자기가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다. 어릴 때 딸의 울고 웃는 모습을 우즈주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딸은 우즈주의 심장이자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쏟아부어 키운 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모를까? 그 경박함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우즈주는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모른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 그는 자전거를 버리고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애처롭게 울었다.

사실 썩임도 늘 한숨만 내쉬는 우즈주의 모습을 보기 싫어했다. 그는 평생 구질구질하고 궁해서 시원시원한 구석이 없었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 혼자서 해결 못 하고 가끔 썩임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있었다. 이런 남자를 두고 썩임은 생각했다.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고 해도 일이 생기면 자기가 나서야 할 게 뻔하다. 우즈주는 그냥 심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 주는 남편 역할만 겨우 할 거다. 물론 썩임에게 이런 따뜻한 감정도 소중하지만, 그녀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을 지탱해 주는 강한 남자다. 그런데 우즈주는 그 자신도 겨우 먹고사는 처지인데 썩임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었다.

썩임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 두 남자, 한 사람은 거칠고 한 사람은 연약하다. 썩임은 이 두 남자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남자

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지만, 쑤잉에게는 과부로서 어길 수 없는 금기가 있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누가 될 수 없었다. 만일 두 아들에 대한 염려만 없었다면 그녀는 모든 금기를 깨고 그 두 남자를 보듬고 싶었다.

“화 그만 내고 여기 있는 마늘이나 까봐. 점심에 국수해줄게.”

쑤잉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스경성은 눈꺼풀을 내리고 고분고분 마늘을 까러 갔다. 스경성이 신나게 까고 있을 때 장얼량이 밖에서 들어왔다. 그는 스경성을 보더니 우당탕하고 자전거를 벽 쪽에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스경성을 향해 눈을 희번덕거리며 침을 내뿜었다. 그러면서 작은 방의 방문을 걸어차고 들어가더니 문을 쿵 하고 닫아버렸다.

스경성은 잠깐 멍해 있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이놈 새끼. 미쳤나?”

쑤잉이 말을 이었다. “신경 쓰지 마. 밥 먹고 집에 돌아가.”

그런데 쑤잉이 국수를 삶기도 전에, 작은 방에서 창문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변성기에 들어선 작은아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뻔뻔해!” 그러면서 작은아들은 사랑을 나눌 때 내는 신음을 큰소리로 흉내 냈다.

스경성도 욕을 하며 장얼량을 혼내려고 일어섰다. 그러자 쑤잉이 그를 꼭 안아 잡고 말했다. “아직 애잖아. 따져서 뭐 해!”

이에 스경성은 목을 빼 들며 말했다. “애라고? 지금 15살이야.” 그리고 또 말했다. “애가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다. “넘어뜨린 저 자전거도 내가 사준 거야!” 성격이 급한 스경성은 항상 말하다가 스스로 울화통이 터지고 만다. 그는 허벅지를 내리치며 말했다. “내가 천박한 놈이지!”

“제발 그만 해. 더 말하면 나까지 욕하는 거잖아.” 쑤잉이 계속 말했다.

스경성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고 그녀가 안아 잡은 대로 가만히 있었다.

“됐어. 먹을 거 하지 마. 화나서 못 먹겠다.” 스경성은 통명스럽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스경성이 가고 나서 쑤잉은 그가 앉았던 의자 밑에서 지폐 한 뭉치를 발견했다. 지난번에 쑤잉의 큰아들이 기술 학교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스경성이 놓고

간 돈이었다. 그녀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할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이 돈을 보며 쑤잉은 아버지가 천 위안을 남기고 가셨던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피땀 어린 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한 장, 한 장의 주글주글한 지폐가 땀에 젖어 끈적끈적했고 시큰한 냄새를 강하게 풍겼다. 이 돈에는 스경성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걸 그녀는 느꼈다. 쑤잉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한숨을 내쉬었다.

8

장쯔젠은 도시의 철도 기술 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성적이 우수하고 부지런했기에 졸업 후 철도부서에서 기차 점검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기차를 타고 다니며 일했다.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 돈을 좀 모았다. 그리고 동료들의 소개로 한 여자와 만나게 되었다. 여자 집은 교외에 있었고 집안 형편이 장쯔젠보다 훨씬 좋았다.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여자 측은 장쯔젠에게 적지 않은 납채 돈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쑤잉은 매우 기뻐했고 여자 측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결혼 전, 장쯔젠은 이 여자에 대해 몰래 알아본 결과, 귀하게만 자라서 성격이 드셨다. 이에 장쯔젠은 결혼을 망설였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의 의견을 물었다. 쑤잉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한마디 했다. “얘야,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야.”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이것이 훗날 아들이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결혼을 위해 쑤잉은 집안에 돈이 되는 물건을 다 팔아버렸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친척들에게 빌려서 겨우 납채 돈을 마련했다. 이때 여자 측의 남동생도 결혼 준비하고 있었다. 예비 사돈네는 아들의 신혼집을 짓기 위해 옛날 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올리려던 참이었다. 쑤잉네가 준 납채 돈을 받자마자 예비 장인 마(馬) 씨는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마 씨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면서 장쯔젠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아. 그래서 집을

사달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 지금 짓는 건물 위에 내가 한 층 더 올려주마. 자네 신혼집으로 쓰게. 넓어서 살기 좋을 거야. 그리고 같이 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잖아.” 이렇게 집을 다 짓고 나서 등기부등본에는 아내의 남동생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장쯔젠의 신혼집이라고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맨 꼭대기 층의 세 칸 방이었다. 결국, 납채 돈을 바쳐 아내와 아내 남동생에게 버젓한 건물을 지어 준 셈이다. 그리고 자기는 데릴사위가 된 거나 다름없었다.

이것도 모자라 장인어른은 술을 한잔 들 때마다 장쯔젠에게 잊지 말라는 뜻이 말했다. “다 내가 반평생을 노력한 덕분이야. 이 장인어른의 인맥이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4층 높이를 허가했을까? 3층밖에 못 지었겠지. 그럼 너도 이런 큰집에서 살 수 없었겠지.” 이 말은 장쯔젠이 거꾸로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는 장인어른의 말에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장인어른께 술과 차를 따라 드렸다. 장인어른은 암전하고 분수를 아는 장쯔젠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해. 누구 덕분인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은 아내 친정집이 아니었으며 이 가난한 총각이 도시에서 발을 붙일 수도 없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어머니랑 백수 동생과는 관계를 끊고, 처가의 데릴사위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데릴사위가 된 장쯔젠은 월급통장도 아내가 전부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가 모두가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불쌍한 쑤잉은 혼자서 큰아들 결혼할 때 진 빚을 다 갚아야만 했었다. 거기다가 어머니 보러 가는 것마저 처가 몰래 가야 했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작은아들이 쑤잉에게 한 말이 너무나도 정확했다. “엄마, 형을 20년 동안 키웠는데, 결국 마 씨네 머슴으로 보냈네.”

쑤잉은 아들 등짝을 때리며 말했다. “네 형 발끝만 따라가도 내가 속이 덜 썩지.”

철없는 장얼량은 히죽거리며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졸라댔다. 그는 용돈을 받아 또 시내에 가서 놀 생각이었다.

이렇게 일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장쯔젠이 처가 몰래 어머니를 보러 왔다. 어머니를 보더니 그는 입매가 늘어지며 울 것만 같았다. 통조림

공장에서 퇴근하고 막 돌아온 어머니가 저녁밥으로 다 식은 찌빡과 반찬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본 쑤잉은 다급히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고 물었다. “뭘 일 있었어? 빨리 말해 봐!” 큰아들은 자신을 잡은 어머니의 손은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통조림공장에서 황도를 썰 때 베인 상처로 가득했다. 그리고 장시간의 물 작업으로 베인 상처가 모두 갈라져서 밴드로 대충 붙여 놓았다. 이런 어머니의 손을 꼭 부여잡고 아들은 외쳤다. “엄마!” 쑤잉은 다른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계속 아들을 물어봤다. “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의 얼굴은 수심에 가득 차 있었고 이마주름은 밧고랑처럼 깊이 패어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거듭난 재촉 하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집사람이 임신했어요.”

“진짜? 좋은 일이네! 근데 왜 얼굴이 이 모양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키가 크고 마른 장쯔젠은 자신의 어깨높이밖에 안 되는 어머니와 얘기하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런데 그는 이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쭈그러 앉아버렸다. 그리고 머리를 양다리 사이에 파묻고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가 기술 학교에 다니지 말 걸 그랬어.”

쑤잉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아들은 중학교부터 공부를 잘했다. 사실 이대로 계속 공부하면 4년제 대학에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일찍 철이 든 아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저렴한 학비에 숙소도 무료로 제공되는 기술 학교에 갔다. 그리고 졸업 후 얻은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월급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또 야외에서 땀 흘리며 하는 일이라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일 수는 없었다. 이에 쑤잉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네가 고생이 많지.”

“다니는 직장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좋은 기회를 만났고, 또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깟 고생이 뭐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일 년에 고작 몇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쉬후(雪湖) 알루미늄 광산 공장의 사무실에서 일해요. 버젓한 직장이지요. 일도 한가하고요. 그리고 몇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에 관한 소문이 도는데, 어느 부서 책임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장쯔젠은 차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고 한탄만 했다.

아들의 말에 쑤잉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아들이 며느리 배 속의 애를 의심하는 거구나! 하지만 설마설마하는 마음에 쑤잉은 아들을 슬쩍 물어보았다. “날짜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말했다. “다시 계산해 봐. 남의 말만 듣지 말고.”

고개를 든 아들의 눈가는 눈물로 젖어있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예민하고 침착한 아들이 이런 중요한 일을 잘못 계산할 리가 없었다. 그는 계속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왜 나 같은 놈이랑 결혼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몇 개월이야?” 쑤잉이 물었다.

“3개월요.” 장쯔젠이 대답했다.

“그럼, 지워버리면 안 되나?” 쑤잉이 또 물었다.

이에 장쯔젠은 머리를 싸쥐었다. 아내와 상의할 여지가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는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다. 지워버리면 자신이 바람 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쑤잉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아들의 눈물은 폭포처럼 계속 흘러내렸다. 쑤잉은 아예 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그러고는 이를 악물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랑 계속 살 거면 그냥 참아.” 그리고 쑤잉은 또 말했다. “둘째가 생기면, 그때 옆에 있으면서 잘 돌보면 돼.”

이에 장쯔젠은 목 놓아 울면서 외쳤다. “엄마!”

“이렇게 살아서 뭐 해요? 포기하지 않고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마저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네요. 정말 아무 의미 없네요.” 아들은 정신이 나간 듯 계속 중얼댔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전부 거짓이라고요. 엄마, 정말 죽고 싶어요.” 쑤잉은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드리기만 했다. 그녀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윗세대의 운명이 또 이렇게 황당하게 대를 이어 갔다. 부모 세대의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자식을 운명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큰아들의 나약한 성격을 보며 썬잉은 작은아들의 난폭한 행동을 내버려두기로 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성깔이 있어야 해. 아니면 큰아들처럼 마누라에게 잡혀서 사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작은아들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난폭하게 굴어도, 썬잉은 그냥 아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임했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을 단속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은아들은 키가 크고 건장했다. 게다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조금이라도 자기 신경에 거슬렀다면 그는 부리부리한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혈기 왕성한 작은아들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화를 내는데 갓 자라난 그의 콧수염들이 모두 곤두설 정도였다.

장얼량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형이 모교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썬잉은 새끼 돼지를 팔아 작은아들의 학비를 내주었다. 하지만 장얼량은 학교를 반년 다니더니 그 뒤로 수업 시간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가 있는 도시는 넓고 변화했다. 거기다가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으니, 장얼량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신바람 났다. 그러던 어느 실습수업 때, 그는 이번에 졸업할 학생들이 외진 지역의 철도 건설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 가면 기술직으로 있거나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따라 몇 개월에서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곳은 황폐한 들판으로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고 여자도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 소식을 들은 장얼량은 바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학업도 중단해 버렸다. 그러고는 악명 높은 건달 밑으로 들어가서 건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건달로 살면서 그는 강제 철거에 가담했고, 또 빛을 받아내기 위해 사람을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기차역에서 도적질까지 해가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다.

돈을 쉽게 얻으면 쉽게 잃기 마련이다. 건달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장얼량은 완전히 나쁜 버릇이 들었다. 특히 횡포를 부리는 포악한 성격, 그리고 약자

만 괴롭히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나쁜 버릇이 장얼량의 몸에 깊숙이 뿌리 내렸다. 그러다가 남은 거라곤 칼자국이 가득한 몸뚱어리와 난잡한 생활로 인한 성병밖에 없었다. 건달 두목이 감옥에 가고 나니 그 밑에 있던 건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장얼량은 이참에 샤옌화(夏豔華)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둘은 쑤잉의 집에 얹혀살면서 집이 너무 허름하다고 투덜댔다. 그 당시 마을은 도로와 인접해 있었기에 도로 옆에는 각양각색의 세련된 작은 건물들이 지어졌다. 그리고 이 건물들을 망산(莽山) 관광지 주변의 민박이나 식당으로 이용했다. 또한 장사 머리가 있는 사람은 농촌 어장, 딸기밭 체험, 과일나무 재배, 야영장 등 다양한 아이템까지 개발했다. 이렇게 농촌에서는 자연을 즐기러 온 도시 가족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애썼다.

쑤잉은 작은아들 내외와 두 달을 같이 살면서 화를 꼭 참다 보니 가슴에 통증이 왔다. 두 사람은 밤마다 껴안고 뒹굴며 낮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쑤잉이 매일 밥을 해놓고 일하러 갔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 먹은 그릇이 널브러져 있고 버려진 쓰레기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둘은 매일 먹고 자기만 하고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쑤잉이 겨우 모은 약간의 저축마저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다가 더 이상 쓸 돈이 없자 샤옌화는 호텔에서 일을 몇 달 했다. 그런데 서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었다. 때마침 임신했으니 샤옌화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기로 했다. 이에 쑤잉은 최선을 다해 샤옌화를 돌봤다. 쑤잉은 음식이 겹치지 않게 오늘은 닭 요리, 내일은 오리 요리, 모레는 생선요리를 하며 정성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쑤잉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샤옌화는 음식을 두어 번 맛보더니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다. 이에 쑤잉은 화가 났지만, 그래도 꼭 참았다. 그러고는 목욕물도 받아주고, 심지어 샤옌화가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서 갈 만큼 정성껏 돌봤다. 이렇게 두 달 뒤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자궁외임신이라고 했다. 그러자 샤옌화가 오히려 화를 내며 쑤잉이 잘 돌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원망했다. 샤옌화가 이렇게 어머니를 괴롭히는 데도 장얼량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 후에도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은 언제든지 찾아도 되니까 이 몇 년 사이에 애를 먼저 낳겠다고 했다. 큰아

들의 애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니, 쑤잉은 희망을 샤옌화에게 걸 수밖에 없었다. 먼저 간 남편 생각에 쑤잉은 작은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 주길 바랐다. 이렇게 장 씨의 대를 이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쑤잉은 생각했다. 얼마 후, 작은 며느리가 또 임신했다. 쑤잉은 며느리 배 속의 애가 잘못될까 봐 다시 예전처럼 정성껏 돌보았다. 하지만 또 자궁외임신이였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입원하고 한쪽 수란관을 절제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샤옌화가 예전에 몸을 막 굴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작은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 때문에, 자궁벽이 얇아져서 착상이 안 됐던 것이었다. 의사는 알면서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임신이 힘들다고 했고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두 사람의 싸움은 잦아졌다. 시험관 시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둘은 싸우다가 결국 해결법을 찾았다면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그리고는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등, 결혼 예물을 안 줬다는 등, 둘은 한목소리를 내며 쑤잉한테 바라기만 했다.

쑤잉이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며 금방 끓인 닭국을 들고 병원에 왔다. 이 닭국은 집에서 풀어 놓고 키운 토종닭을 잡아서 우려낸 국물이라 영양가 있는 기름이 뽕뽕 떠 있었다. 샤옌화는 닭국을 보더니 느끼하다고 밀어냈다. 그리고는 결혼 예물 얘기를 꺼내며 장얼량에게 화를 냈다. 그녀는 밥상을 손으로 내리치더니 닭국을 담은 도시락 통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이에 장얼량도 양보하지 않고 그녀와 싸우기 시작했다. 화가 난 샤옌화는 장얼량의 뺨을 찰싹 때렸다. 장얼량도 그녀의 뺨을 때리며 둘은 팽팽하게 맞섰다.

샤옌화가 평평 울기 시작하자 같은 층의 병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와 구경했다.

쑤잉은 머리가 어질어질했고 너무나도 창피했다. 방금 내던진 닭국의 뜨거운 국물이 쑤잉의 몸에 튀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작은 며느리가 때린 건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맞은 사람은 자신인 것 같았다. 닭국을 담았던 알루미늄 도시락 통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카랑카랑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애꿎은 도시락 통을 주워 든 쑤잉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했다. 그래, 실컷 싸워라. 이제 알아서들 살아.

어쩌면 하이싱과의 결혼은 뿌리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대가 끊겨도 어쩔 수 없지. 이것도 운명이니까. 썬잉은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썬잉은 남은 몇천 위안을 작은아들에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몸조리하는 동안 썬잉은 마을의 가장 외진 곳에서 황폐한 집 한 채를 찾았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사정했다. “죽어도 이 집에서 죽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집주인은 썬잉을 가엾게 여겨 살라고 했다. 있을 곳을 찾은 썬잉은 집에 가서 옷 몇 벌과 덮을 이불만 들고 급히 나왔다. 그리고 공장에서 월급이 나오자마자 집주인에게 집세를 건네주며 연신 고맙다고 했다. 집주인은 안 받고 싶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샤옌화가 퇴원하고 나서 둘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하녀처럼 부려 먹었던 어머니는 집에 없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어머니의 집을 차지해서 어머니가 월세방 살이를 하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장얼량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여러 번 설득했다. 하지만 썬잉은 끝까지 거절했다. 그러자 장얼량이 벌컥 화를 내며 어머니의 옷이랑 이불을 가져가 버렸다. 썬잉은 덮을 이불이 없어서 옷을 입은 채로 자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한 장얼량은 집주인을 찾아갔다. 집주인은 오래전부터 도시에 나와 살고 있었다. 장얼량을 보자, 집주인은 어머니가 준 집세를 그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애당초 네 어머니가 들어와 사는 걸 반대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자네랑 엮이기 싫어서야.” 이에 장얼량은 뻔뻔하게 웃었다. 집주인은 또 그에게 천 위안을 더 주며 말했다. “썬잉 아줌마가 그 빈집을 대신 지켜 준다고 생각할게.” 이렇게까지 챙겨줬는데, 장얼량이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도시에 온 김에 장얼량은 형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싶었다. 형이 결혼할 때 집에서 가져간 납채 돈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항상 절약하며 사는 형이 돈을 많이 모았을 것이니 이제 좀 돌려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장얼량은 생각했다.

이에 장얼량은 형이 있는 마 씨네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마 씨네는 형이 집에 왔다가 다시 일하러 나갔다고 하면서 그를 문전박대했다. 화가 난 장얼량이 문밖에서 횡포를 부리려고 했지만, 마 씨 부자도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위층 베란다에 서서 핸드폰을 들고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태세

였다. 이에 장얼량은 어쩔 수 없이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그러면서 형을 한바탕 욕했다. 이 못난 놈, 왜 도망가는데!

그날, 장쯔젠은 설거지를 다 해놓고 바닥도 다 닦아놓았다. 그러고는 아내와 얘기를 나누면서 둘째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낳고 싶으면 혼자 낳아.”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이때 장쯔젠이 옛날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봐봐. 이 아이가 날 닮은 곳이라곤 없잖아!” 이 말에 아내는 폭발했다. 그녀는 장쯔젠을 밀치며 말했다. “무슨 뜻이야! 대체 무슨 뜻이냐고!” 아내의 말에 장쯔젠은 가슴에 쌓이고 쌓였던 원한들이 한꺼번에 터졌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장쯔젠은 아내를 밀쳐버렸다. 그러자 화가 난 아내는 장쯔젠의 ‘잘못’을 전부 넣어놓았다. “밥 먹을 때 찹찹 소리를 내지 않나. 잘 씻기를 하나. 그리고 인색하기 짝이 없어. 누가 가난한 집 자식 아니랄까 봐. 거기다가 얼굴까지 못생겼어. 피부고, 옷차림이고, 딱 보면 시골 농사꾼이야. 같이 다니기 창피해.” 아내가 이처럼 늘어놓지 않았으면 장쯔젠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잘못’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아내의 펄럭이는 빨간 입술을 보며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런 아내를 보며 그는 자기 생각에도 가소로운 말을 내뱉었다.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한 장쯔젠은 속으로 알고 있었다. 하늘이 알고 있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다는걸. 하늘이 어찌 그 많은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그의 말을 반박했고 장쯔젠의 마음도 아내의 말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하늘이 뭘 알아? 그건 알겠네. 네 엄마가 남자한테 꼬리 친 거 말이야. 그리고 이불 속에서 벌거벗은 채 잡힌 거.” 장쯔젠은 바로 이 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그는 “아!”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처럼 요란했다. 그 순간 장쯔젠의 얼굴은 별걸개 달아올랐고 눈에는 원망과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수모와 치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마구 흔들었다. 그러면서 장쯔젠은 눈물을 머금고 아내를 덮쳤다. 그 기세는 아내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 같기도 했고, 넘어지기 직전 아내를 꼭 껴안고 싶은 것 같기도 했다.

장쯔젠의 히스테리적인 모습에 아내는 놀란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아래층에 있던 처남이 누나의 비명을 듣고, 급한 마음에 식칼을 들고 누나를 구하러 올라왔다. 처남은 욕설을 퍼부으며 장쯔젠을 억지로 4층에서 끌어내더니 그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고는 대문을 안에서 잠가버렸다. 쫓겨난 장쯔젠은 홀로 문밖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 마 씨네 거실의 CCTV는 대문 밖에 있는 장쯔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티비를 보며 손자와 놀고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한 가족이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무성 코미디 영화를 보듯이 CCTV를 힐끗 쳐다보며 웃었다.

장쯔젠은 마음이 아팠다. 처남이 장쯔젠을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실랑이를 꽤 오래 벌였는데 아내, 장모, 장인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피웠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동정하는 눈길을 보내면서도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듯했다. 그리고 옆에 다가와 걱정하는 척하며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실은 여기저기 소문이나 내려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이에 장쯔젠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후득실을 생각해 봤다. 그러고는 문을 두드리며 잘못했다고 두 손 짹짹 빌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장쯔젠은 체념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밤에 차를 타고 직장에 갔다. 그러고는 책임자에게 가장 먼 곳의 건설 현장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장쯔젠은 집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참고 살라고 가르쳐준 게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출신, 처지 그리고 어머니의 조신하지 못한 행동과 오랜 세월 혼자 고생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장쯔젠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미워했고, 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겨울의 위둥평원(豫東平原)은 아득하고 망망했다. 하지만 쓸쓸한 추위 속에서

또 하나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졌다. 앙상한 나무, 땅에 달라붙은 보리싹, 그리고 푸른색을 숨긴 망산, 만물이 스스로 내려놓고 희망과 생기를 깊은 땅속에 숨겼다. 그리고 눈바람과 흑한을 견뎌내며 힘을 축적했다. 내년에 더 잘 자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 땅은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우즈주가 힘겹게 삼륜 전동차를 밟고 있었다. 지난번, 장얼량이 전동차를 부수고 나서부터 자꾸 고장이 났다. 충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방전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는 험뎅거리며 방전된 전동차를 밟고 가다가 너무 지치면 투덜거리며 욕을 했다. 사실 우즈주는 욕을 하면서도 장얼량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다. 그는 장얼량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쇠 파이프로 삼륜 전동차를 부술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는 차를 부수는 것도 모자라서 우즈주를 향해 모진 욕을 했었다. “이 엉큼한 놈아! 어디 감히 우리 엄마를 넘봐? 고물차로 드라이브까지 하나? 창피한 줄도 모르는 놈!”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큰 소리를 경고했다. “이놈이랑 다시 만나기만 해봐요!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날에는 아들 못 볼 줄 알아요! 이놈들이랑 살아요!”

지난번에 장얼량이 난리를 쳤을 때 우즈주는 화가 났지만, 감히 대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얼량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썬잉의 병원 진단서를 장얼량의 얼굴에 던져서 보라고 할 셈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너희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심장병에다 고혈압, 그리고 위병까지 걸렸어. 언제 세상 뜰지도 몰라. 알고는 있니?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은 있냐?

우즈주는 고장 난 전동차를 밀다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전동차를 길옆에 세워두고 담배를 꺼내 피웠다. 차 안에 누워있는 썬잉은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움츠린 채 우즈주가 퍼놓은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다. 우즈주는 썬잉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많이 늙었다. 이젠 머리도 반 백발이 되었다. 하지만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이 남아있었다. 우즈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다. 주름진 손끝이 그녀의 얼굴에 닿으려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다. 그녀가 놀라 깨어날 봐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우즈주는 그녀의 이불을 잘 덮어주었다.

시(市) 병원에서 마을까지 백여리가 되는데 그들은 절반밖에 못 왔다. 앞에 보이는 마을 입구에 우즈주의 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전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즈주의 지인도 독신이었다. 그는 전화 속에서 도배 일 때문에, 도시에 잠깐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곧 설인데 돈을 좀 벌어야지. 열쇠는 원래 자리에 있어.” 지인은 우즈주에게 자기 집에서 편히 있으라고 했다. 이때 썬잉이 잠에서 깨어났다. 배터리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우즈주를 도와 전동차를 밀겠다며 일어나려고 했다. 이에 우즈주는 그녀를 잡으며 편히 누워있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전동차를 지인 집 입구로 밀었다. 집 앞에 도착한 우즈주는 문 위의 벽돌 사이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전동차를 충전시켜 놓고 난로도 피우고, 국수도 삶았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썬잉을 일으켰다. 그들은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추위를 쫓았다.

썬잉은 난로를 쬐며 국수를 힘겹게 먹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망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즈주 씨, 오늘 그냥 여기서 자면 안 돼? 내일 출발하자. 이따가 나랑 같이 뒷산에 가보자.” 썬잉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뒷산에 가고 싶었다.

비구니가 입적한 후 몇 년 동안, 썬잉은 망산을 지나갈 때마다 비구니의 무덤을 찾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과일을 올려놓고 노잣돈과 향초를 태우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힘든 삶을 계속 버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썬잉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비구니의 묘비도 세웠다. 그 위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

고 할망절 주지 푸칭(樸淸) 법사

비구니는 입적할 때까지 대리 주지가 아닌 정식 주지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종교부서에 문의도 해봤고, 요구도 해봤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비구니는 절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죽을 때까지도 당당한 직함을 얻지 못했다. 썬잉은 비구니가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비구니에게 정식 주지라는 글이 담긴 묘비를 세워 주었다. 우즈주와 같이 망산을 올라 온 쑤잉은 비구니의 무덤 앞에서 노잣돈을 태우고 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쑤잉은 말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산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올라오기가 힘드네요.”

얼마 후 둘은 산에서 내려왔다. 몇 년 사이에 산 아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산 아래는 넓은 광장이 생겼고 그 주변에 새로운 성루들을 겹겹이 지었다. 그리고 옛날 길옆에 있던 황폐한 고분들도 이제는 잘 정비되어 유구한 역사를 알리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광장 옆에는 바다만큼 넓은 인공호수가 생겼다. 그리고 망산 꼭대기에는 높이가 몇십 미터나 되는 한나라 개국 황제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지금의 망산은 입장료가 만만치 않은 테마공원으로 변신했다. 우즈주는 쑤잉을 부축해서 돌의자에 앉았다. 호수를 바라보는데, 세월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획 하고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그러자 수면에는 주름 같은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더니 또 금방 사라졌다. 호수를 보면서 쑤잉은 생각했다. 그래, 그런 거지. 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산들 바람이 불면 조용한 물결이 끊임없이 일렁일 것이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쑤잉은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우즈주는 그녀에게 외투를 걸쳐주었다.

인근 주민들은 광장에 나와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며 산책도 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활기찬 삶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쑤잉의 일생은 마른 장작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불태웠다. 누구의 딸이라는, 아내라는, 어머니라는, 할머니라는, 그리고 노부인이라는 이름에 얽매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야 했었다. 사는 게 대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반짝이고 있는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 그들은 영원히 침묵하고 있다.

쑤잉은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방금 춤을 추던 사람들이 광장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모였다. 그들은 씩씩한 목소리로 젊었을 때 불렀던 경쾌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음치가 많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그래도 쑤잉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맘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용기, 노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부러

왔다. 썬이는 자신을 다시 돌아봤다. 노래를 얼마나 오래 안 불렀지? 그리고 또 하이성이 사고 나던 전날 자기에게 약속하던 광경이 생각났다. 소파에 앉아 음반을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잡지도 보며... 이 광경은 썬이가 꿈꿔왔던 ‘우아한’ 삶이었다. 그녀가 누릴 수 있었던 삶이었다. 그런데 운명의 길이 바뀌면서 그녀는 이런 꿈을 꿀 자격이 없게 되었다. 사실 노래를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노래를 절로 나오게 하는 삶의 여건,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즈주는 썬이의 팔을 잡고 권했다. “예전에 노래 부르기 좋아했었잖아. 불러 봐. 내가 골라 줄게.” 그러면서 말을 이었다. “당시 내 마음을 움직인 게 무엇인지 알아? 자네가 막 결혼했을 때야. 우리 다 같은 길옆에 살았잖아. 자네가 항상 일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 그래서 궁금했어. 어디서 온 색시일까? 참으로 순수하고 밝은 여자네.”

썬이는 잠시 멍하더니 이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즈주가 그렇게 일찍부터 자기를 지켜봤다는 걸 전혀 몰랐다. 하지만 우즈주의 말을 듣고도 썬이는 계속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즈주가 이미 광장에 있는 노래 기기에서 노래를 골라 놓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쥐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곡만 불러 봐. 그냥 놀러 왔다고 생각해. 기분도 풀고 좋잖아.” 그러면서 마이크를 억지로 썬이 손에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썬이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부축해 갔다.

노래 기기에서 반주 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무 떨린 썬이는 첫 두 마디를 놓쳐 버렸다. 하지만 이내 두 눈을 감고 노래 속에 빠졌다. “곤혹스러운 내 마음. 현실과 바램, 누굴 버려야 하나. 기쁨과 이별을 다 겪고 나니, 사는 게 대체 무엇인지. 기나긴 세월에 수없이 물어봤어. 진정한 삶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썬이는 노래를 다 부르고 눈을 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즈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소매로 축축한 눈가를 닦고 있었다.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노래에 심취해 있었다. 다들 너무 놀랐다. 저렇게 수수한 옷차림을 한 나이 든 여자가 이렇게나 노래를 잘 부르다니. 그녀의 노래에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다. 그러면서 티비에 나오는 가수만큼 잘한다고 사람들은 감탄했다. 그중에서도 우

즈주의 박수가 가장 뜨거웠다. “앵콜!” “앵콜!” 사람들은 외쳤다.

사람들의 강한 앵콜 요청에 그녀는 또 홍콩 여가수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보낼 생각이 없는 듯 연속 앵콜을 요청했다. 그렇게 쑤잉은 연이어 다섯 곡을 불렀다. 순간 현장은 쑤잉의 개인 콘서트가 된 것만 같았다. 다섯 곡을 불렀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듣고 싶어 했다. 쑤잉은 마이크를 손에 쥐고 사람들의 감상하는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산속의 긴 긴밤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마음속 깊이 타오르는 불꽃은 항상 현실이라는 찬물에 꺼져버렸다. 노래하는 순간, 그녀는 젊은 날의 자신감과 감수성을 되찾은 듯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니 청춘과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남은 건 쇠약하고 늙은 몸뿐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우즈주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서 쑤잉한테 마실 물이랑 눈물 닦을 휴지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둘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서툴게 서로를 껴안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긴 세월을 건너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이렇게 둘은 온 힘을 다해 서로를 품었다. 비록 이제는 야위고 늙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서로에게 따뜻함을 안겨주려고 애썼다. 우즈주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기나긴 밤, 둘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우즈주의 지인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는 황폐한 마당에 회화나무, 느릅나무, 오동나무, 그리고 감나무까지 심어놓았다. 거기다가 새들을 내쫓지 않고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도 대여섯 개나 걸어놓았다. 우즈주와 쑤잉은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난로 옆에 앉았다. 어젯밤에 둘은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해서 이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저물어 가는 노을을 보면서 나무 위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있었다.

따뜻한 난로 옆에서 둘은 나란히 붙어 앉았다. 우즈주는 담배를 피우며 주머니에서 사탕 몇 알을 꺼내더니 한 알을 까서 쑤잉 손에 쥐어 주었다. 그녀는 사탕을 받아 자연스럽게 입 안에 넣었다. 그리고는 또 한 알을 까서 우즈주에게도 주었다. 오동나무 꼭대기의 둥지에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방금 새끼 새들이 태어난 것 같다. 어미 새는 입에 벌레를 물고 새끼 새들을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까치 한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를 보던 우즈주는 갑자기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반평생을 살았는데, 오늘에 서야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 그러면서 또 말했다. “너무 좋다.”

쑤잉은 아무 말 없이 입에 든 사탕을 녹이며 나무 위의 새들을 계속 보았다. 새들이 모두 나뭇가지에 앉아 짹짹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말다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논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귀여웠다. 이렇게 둘은 새들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는 계속 붙어 앉아 새들을 보았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우즈주는 쑤잉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녀도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는 우즈주의 손을 잡고 자기 품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우즈주를 향한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면서도 부끄러움이 담겨있었다. 그녀는 마치 젊은 처녀처럼 수줍은 눈빛으로 우즈주를 쳐다보았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서로의 눈빛은 그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쑤잉의 손을 어루만졌다. 우즈주의 마음속에서 쑤잉은 여전히 사탕을 좋아하던 그 아가씨였다. 단지 지금은 나이 든 아가씨가 된 것뿐이다.

“다음 달, 정저우(鄭州)에 가기로 했어.” 우즈주가 말했다. 미용실을 하는 딸한테서 연락이 왔다. 딸은 연말에 미용실이 바빠서 아버지에게 외손자를 봐달라고 했다. 외손자는 올해 3살이고 내년이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 가봐.” 쑤잉이 말했다. “우리 모두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잖아.” 그러면서 쑤잉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딸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바른길로 돌아왔잖아.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얼마나 좋아. 부모가 당연히 많이 도와줘야지.”

우즈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신이 아픈데, 내가 가버리면 돌봐 줄 사람이 없잖아.”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정말 괜찮아.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두 눈에서는 노을이 비추어 보였다. “오래 살았어. 요즘 계속 아버지가 꿈에 보여. 꿈에서 아버지가 계속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처럼 말이야. 그렇게 나를 보고 웃고 또 웃었어. 아버지를 보러 갈 때가 됐나 봐. 정말 보고 싶다.”

우즈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쑤잉은 그의 손등을 만지며 웃었다. “바보네. 늙어서도 바보 같은 소리를 하네.”

우즈주는 눈물을 닦고 입술을 한참을 달싹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게 말이야. 사실 계속 사과하려고 했었어. 그날 밤, 당신이랑 스경성이…”

쑤잉은 그의 손바닥을 톡톡 치며 말했다. “말 안 해도 돼. 다 지나갔어.”

“잘 지내. 스경성이 공사 마치면 내년 봄쯤 돌아올 거야. 그때면 그 녀석이 당신 곁에 있어 줄 거니까.” 우즈주가 말했다. “나도 손자를 다 돌보면 바로 달려올게.”

“괜찮아. 다들 볼일 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쑤잉은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일기예보에서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했어. 내가 겨울을 못 버티면 눈 오는 날에 죽어도 좋아” 그녀는 또 말했다. “내가 눈 내리는 날을 많이 좋아했어.” 쑤잉은 어렸을 때의 겨울이 생각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방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었다. 밥 짓는 연기가 하얀 눈밭에서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커다란 빗자루로 눈을 쓱쓱 걷어 내며 길을 내고 있었다. 그녀가 깡충깡충 뛰어나오자, 아버지는 큰 외투로 딸을 감쌌다. 쑤잉은 외투 틈새로 하얗게 뒤덮인 별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아빠, 어제 또 좋은 꿈을 꾸었어요.

우즈주는 손으로 쑤잉의 입을 막으며 그만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죽음에 초연해져 죽음을 언급하는데 조금도 꺼려지는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쑤잉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의 얘기를 했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왠지 안 좋은 예감이 생겼다. 쑤잉이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즈주 씨, 한 번 더 안아줘.”

우즈주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둘은 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충전이 다 됐네. 이제 가지?” 우즈주가 물었다.

쑤잉이 대답했다. “서두를 거 없어, 좀 더 앉았다가 가.”